metro®

메트로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제3049호 www.metroseoul.co.kr

스마트폰 시장 9월大戰 불붙다

삼성전자, 전략제품 갤럭시 노트4 이달 말 출시
애플·소니, 아이폰6·엑스페리아Z3로 대항마

추석을 앞두고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애플 '아이폰6', 소니 '엑스페리아Z3' 등 전략 스마트폰이 잇따라 공개되며 9월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불 붙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4'를 비롯해 중국, 미국에서 '갤럭시 노트4'를 공개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갤럭시 노트4의 사양은 ▲엑시노스5433 옥타코어 또는 퀄컴 스냅드래곤805 쿼드코어 프로세서 ▲5.7인치 QHD(2560X1440) 디스플레이 ▲3GB 메모리 ▲1600만 화소 후면카메라 등을 갖췄다.

업계는 갤럭시 노트4가 5.7인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모델과 Q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두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4를 이달 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메탈 소재 테두리를 적용한 슬림 디자인의 스마트폰 '갤럭시 알파'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3일 출시한다. 갤럭시 알파는 6.7mm로 국내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기존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 이동통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옥타코어 AP를 채용해 고사양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에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2GB 메모리, 1860mAh 용량 배터리, 1200만 화소 카메라도 채택했다.

이밖에 한층 진화된 '지문 인식' 기능으로 웹사이트 로그인이 가능하며 개별 콘텐츠를 숨길 수 있는 '프라이빗 모드' 기능도 개선했다. 심박 센서, S-헬스, 퀵 오토포커스 등 갤럭시S5의 주요 기능을 그대로 지원하고 삼성 기어2, 삼성 기어핏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도 가능하다.

갤럭시 시리즈 대항마로 애플은 '아이폰6'를 앞세울 계획이다. 애플은 9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신제품 아이폰을 발표한다.

애플 아이폰6 공개를 앞두고 각종 루머도 무성하다. 업계에선 아이폰6가 4.7인치와 5.5인치 두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가격 역시 새로 탑재되는 부품들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출고가가 1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A8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애플의 새 운영체제(OS)인 iOS 8.0이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소니도 IFA 2014에서 '엑스페리아Z3'와 보급형 모델인 '엑스페리아Z3 콤팩트'를 함께 공개한다. 엑스페리아Z3는 5.2인치 디스플레이에 퀄컴 스냅드래곤801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략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도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추석이 끝난 후 11일부터 17일까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영업정지 기간을 마친 LG유플러스는 한시름 놓았다.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전략 스마트폰 출시 일정을 3일 이후로 본격화하면서 큰 영향 없이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영업정지 일정이 일부 스마트폰 출시 일정과 겹치면서 다소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추석 이후 보조금 경쟁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9월 전략 스마트폰의 잇따른 출시가 통신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통사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마케팅 경쟁과 함께 과연 어떤 제품이 연말까지 시장을 주도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복지장관 "담뱃값 4500원까지 올려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가격을 2천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가격을 4500원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 상점에서 담배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극심"

올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이틀 전인 6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8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귀성·귀경길 최대 소요시간이 서울→부산·광주 8시간, 부산→서울 7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 등 지난해보다 귀성길은 30분~1시간 가량 감소하고 귀경길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5~11일 7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945만명으로, 추석 당일(9월 8일)에 최대 74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3482만명) 대비 13.3%(165만명) 증가,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564만명으로 작년(580만명) 대비 2.9%(16만명) 감소, 평시(329만명)보다는 71.4%(235만명)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05만대로 예측되며,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4.4%로 가장 많고 버스 11.2%, 철도 3.3%,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6%와 0.5%로 조사됐다.

귀성 때에는 주말이 포함돼 교통량이 분산되지만 귀경 때에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 교통량이 집중돼 고속도로 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예측 결과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이용할 때 귀성길은 작년보다 1시간가량 덜 걸리지만 귀경길은 소요시간이 10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예상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고속도로 요금소 기준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서울→광주 8시간, 서서울→목포 9시간 30분, 서울→강릉 4시간 30분이다.

귀경길에는 대전→서울 3시간 30분, 부산→서울 7시간 40분, 광주→서울 6시간, 목포→서서울 6시간 50분, 강릉→서울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34.2%)을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 14.2%, 남해안선과 호남선 각각 8.6%, 영동선 8.2% 순이었다.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 대책기간에 하루 평균 철도 535량, 고속버스 1884회, 항공기 21편, 여객선 170회 등 수송력을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 혼잡상황, 주요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휴 기간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2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하며, 대체휴일인 9월 10일에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

/김두탁기자 kimdt@

추석 특별판 배포 메트로신문은 2일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추석특별판을 제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역과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다. 사진은 신촌역 입구에서 특별판을 배포하는 모습.

평양 지하철 플랫폼 평양 지하철의 한 역에서 어두운 느낌의 지하 플랫폼으로 두 열차가 동시에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 방문객들은 보통 1호선(천리마선)의 한, 두 역 사이 탑승 이동만 허용된다. /AP 연합뉴스

고질병 치료할 두 드라마

기자 수첩

김 지 민 <연예스포츠부 기자>

한국 드라마 제작환경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현재 방영중인 몇몇드라마에 쪽대본이 사라진 반가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배우 한예슬은 KBS2 드라마 '스파이 명월' 촬영 도중 미국으로 도피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국 드라마 촬영 현장의 열악함을 탓했다. 대중은 한예슬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난을 퍼부었지만 '쪽대본'과 생방송에 가까운 방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드라마 제작 환경의 문제점엔 공감했다.

'한예슬 도주 사건' 이후 3년이 흐른 현재 제작 환경은 여전히 문제점투성이다. 배우들은 촬영 현장에서 작가의 쪽지 대본을 기다리기 일쑤고, 제작진은 드라마 방영 시간 직전까지 일분일초를 다투며 다급히 편집한다.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좋을 리 없다. 제작된 분량이 없으면 작품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청률에 따라 조기 종영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지만 현재 방송 중인 SBS '괜찮아 사랑이야'와 tvN '삼총사'는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인 쪽대본 없이 순탄하게 제작 중이다.

'괜찮아 사랑이야'의 노희경 작가는 이미 4회가 방송된 시점에 마지막 회 대본 탈고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노 작가의 꼼꼼함에 배우 조인성과 공효진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시청률은 물론 작품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총사'는 국내 최초 계획된 시즌제 드라마로 시즌 당 12개 에피소드 씩 총 3개 시즌을 모두 방영할 계획이다. 연출을 맡은 김병수 PD는 "제작기간이 길어지면 제작비도 상승하지만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 제작 시스템이 잘 갖춰진 미국과 일본도 앞선 시즌 성적이 나쁠 경우 더 이상 시즌이 지속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삼총사'는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 두 작품을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점차 나아지길 기대해 본다.

뉴스&뉴스

'음주 품위 손상' 신현돈 1군사령관 전역

● 국방부는 2일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신현돈(육사35기) 1군사령관을 전역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사령관은 지난 6월 모교 안보 강연 행사 후 과도한 음주로 장군으로서의 품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조사에 따라 뒤늦게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국민대통합위 한광옥 위원장 등 연임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제1기 민간위원 18명의 임기(1년)가 만료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4명을 연임 위촉, 4명을 신규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위촉된 4명은 이광자 서울여대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 임정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이사장,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채희문 소설가 등이다.

정부 "北 선수단 체류비 적정 수준 지원"

● 정부는 북한 인천아시아게임 선수단의 체류비를 일정 수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선수단 체류 비용은 남북 간 입장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남북 관례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해병 4명 미필적 고의 살인"

군, 윤 일병 사망 살인죄 적용 확정… 추석 후 첫 공판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론 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 살인죄와 예비적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살인죄 적용 배경과 관련,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구타가 계속됐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가진 의무병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질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해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뤄졌으며,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의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3군사 검찰부는 또 이 병장의 단순폭행 혐의를 상습 폭행으로, 공범인 하모 병장의 단순폭행 혐의는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선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으며, 지휘계통상 직무유기 혐의로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이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새누리당,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사관계 개선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등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국토교통위 여당간사, 김동만 위원장, 김무성 대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새누리 "선진화법은 국회 무력화법"

헌법소원 추진… 법률적 준비 거의 끝내

새누리당이 사실상 3분의 2 이상 원내의석을 보유해야 쟁점 안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이미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적 준비를 거의 완료하고 헌법소원에서 이기기 위한 최종 전략을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며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든 점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언론 지적대로 법안 처리 하나도 못 하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를 빼든 것은 선진화법 체제하에서 강경한 야당이 존재하는 이상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국정 철학을 구현할 주요 정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법 개정을 비롯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검토해왔지만 헌소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현정기자 jhj@

당정, 새해 예산 5%대 증액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대에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부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인 독감무료 접종은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으로 이에 따른 예산 51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86억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어린이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할 방침이다. 대학 반값 등록금 예산을 3조 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렸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주가 조작' 78명 심판대에

증권범죄 수사 6개월 성과…231억 환수

주가조작 범죄를 검찰과 유관기관이 함께 파헤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6개월간 7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 조치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은 제2기가 출범한 이래 약 6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우선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투자수익률을 높여 보려는 고객에게서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3명과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아울러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와 증권카페 운영자 등 8명을 기소했다.

이밖에 자본이 없는데도 거대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무자본 M&A 세력'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진 등 2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아내 살해 뒤 젖먹이 두 딸 버리고 도망

'비정한 30대' 징역 20년 선고

부인을 살해한 뒤 젖먹이 두 딸을 사건 현장에 내버려두고 도망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까지 미리 준비하고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두 딸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은 뒤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일하는 A씨를 대신해 A씨 집에 가 딸들을 돌봤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이씨는 이혼 등으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살해한 뒤, 부인의 옷을 벗겨 강도·성폭행범의 소행으로 꾸몄다.

/윤다혜기자 ydh@

레일바이크 타고 가을 속으로 춘천 김유정역 인근에 코스모스가 활짝 핀 가운데 관광객들이 레일바이크를 타며 초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신여대, 장학금 전국 여대 1위

성신여대가 전국 여대 중 1인당 장학금을 제일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2013학년도 결산 기준 성신여대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349만 5700원이다. 이는 전국의 여자대학 중 가장 많은 장학금으로 서울 시내 39개 대학 가운데서도 성균관대(357만 4700원), 홍익대(353만 4700원)에 이어 가장 많다.

타 여대인 숙명여대(290만6000원), 서울여대(284만9000원), 이화여대(269만7000원)등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다.

성신여대는 그동안 신입생 20종, 재학생 37종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전체 재학생 중 64%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

수능 모의평가 오늘 실시…63만명 응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보는 9월 모의평가가 3일 오전 8시 40분 전국 2113개 고등학교와 290개 학원에서 실시된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이번 모의평가는 재학생 54만8977명, 졸업생 8만2004명 등 총 63만981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A형 29만5304명, B형 33만4657명 ▲수학 A형 43만4942명, B형 18만7652명 ▲ 영어 62만8484명 ▲ 사회탐구 35만7045명 ▲과학탐구 24만7488명 ▲직업탐구 2만3894명 ▲제2외국어/한문 5만6240명이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11월13일에 실시되는 수능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출제 영역·문항 수 등을 본 수능과 같게 출제한다.

교육부는 이번 모의평가 채점 결과와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5학년도 수능의 출제와 난이도 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70% 수준이 유지된다.

채점은 수능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고 결과는 26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윤다혜기자

철도차량 대한민국 명장에 송정훈씨

22년간 전동차 기술 개발·연구… 지식재산권 13건 등록

서울메트로 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송정훈씨(48·사진)가 우리나라 최초로 철도차량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송정훈씨는 1992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한 이후 22년 동안 줄곧 전동차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 업무를 수행해왔다.

송정훈씨는 2007년 현장학습동아리 회장을 지내면서 전동차의 블랙박스인 '속도기록계의 양운전실 동시저장 시스템'을 제작했다.

또한 지하철 안전운행에 꼭 필요한 전동차 자동제어시스템을 점검 수리할 수 있는 ADU 시뮬레이터와 인터페이스장치들을 만드는 등 14건의 유지보수 장치와 시험기를 개발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는 기술연구원에 근무하면서 현장 애로기술 해소와 국가 R&D 사업 업무를 맡아 차세대 도시철도차량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했다. 특허 등 13건의 지식재산권도 등록했다.

송정훈씨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전동차 노후화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성 높은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에게 수여하며, 명장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휘장, 명패가 수여되고 일시장려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동일 직종에서 계속 종사할 경우 매년 장려금이 지급되고 기술선진국 산업시찰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2주 안에 키예프 접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발언 파문… EU 제재에 경고 메시지

"2주 안에 키예프(우크라이나 수도)를 접수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가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푸틴의 발언을 공개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한 자신과의 전화통화 도중 나왔다고 밝혔다.

라 레푸블리카는 이번 발언을 푸틴이 EU에 보낸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했다. 추가 제재 등으로 러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푸틴의 '접수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4~5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대응군은 육·해·공군을 포함한 수천명 규모로 어떤 회원국이든 48시간 이내에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날 발레리 겔레테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겔레테이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규모 정규군을 투입해 전면전을 시작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항할 방어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했던 대전이 우리 땅(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벨라루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그룹 회의가 있었지만 별 성과없이 끝났다. 회의에는 레오니트 쿠치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하일 주라보프 키예프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美 안보위협 요소

1위 알카에다 4위 북핵

미국인은 알카에다 등 이슬람 무장 단체를 최대 안보 위협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와 USA투데이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가 미국의 주요 안보위협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꼽았다.

또 신진 이슬람 무장 단체인 이슬람국가(IS)는 응답자의 67%가 안보 위협 요소로 언급, 2위를 차지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59%)과 '북한 핵 프로그램'(57%)은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북핵을 안보 위협으로 느낀다는 응답자는 지난해에 비해 10%p 줄었다.

이어 '러시아와 인접국의 긴장 고조'(53%), '에볼라 바이러스 등 전염병 확산'(52%), '중국의 강대국 부상'(48%), '글로벌 기후 변화'(48%) 등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꼽혔다. /조선미기자

'축구광' 교황과 '축구영웅' 마라도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안으로 1일(현지시간) 로마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평화를 위한 범종교 축구 경기에 앞서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교황에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선물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윈프리 신간 '내가 확실히 아는 것'

14년 집필 칼럼 엮어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60)가 신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을 펴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윈프리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지 '오, 디 오프라 매거진'에 그간 정기적으로 실어온 칼럼을 간추려 책으로 엮었다.

윈프리는 TV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의 인기가 절정이던 2000년 '오프라 매거진'을 창간했다. 이후 14년 동안 이 잡지에 칼럼을 썼다.

신간은 기쁨·두려움·좌절극복·가능성·감사 등의 주제로 정리돼 있다. 총 240쪽 분량으로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도 출시된다.

/조선미기자

"맑은 공기 사세요"

metro HongKong

5ℓ 캔 하나 500만원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 '맑은 공기' 캔이 관광 상품으로 나왔다.

최근 막을 내린 광둥국제관광산업박람회에서 광둥성 후이저우시는 중국 10대 명산 중 하나인 뤄푸산의 '공기 캔'을 판매했다. 정상 해발이 1200m인 뤄푸산은 산림분포도가 높아 공기 중 음이온 함유량이 90%에 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발 1000m의 맑은 공기를 담은 공기 캔 20개를 경매로 팔아 4만6400위안(약 765만 원)의 수익금을 남겼다. 가장 비싸게 팔린 5ℓ짜리 캔 하나의 가격은 3만 위안(약 495만 원). 이번 수익금은 윈난 지진 재해 지역에 성금으로 전달된다.

3만 위안으로 캔을 낙찰 받은 황모씨는 "뤄푸산은 산림 자원이 풍부하고 자원 환경이 수려하며 공기도 좋다.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며 "재난 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깨끗한 공기를 판매한다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중국 각지에서는 이미 상품이 됐다. 구이저우 관광국은 지난 3월부터 관광객에게 '공기 캔'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고, 허난성 뤈촨현의 라오쥔산에서는 신선한 공기 20팩을 정저우시로 보내 시민에게 무료로 '맛보게' 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공기 캔에는 도시 대기 오염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담겨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백마 12마리 화려한 마상쇼

metro Russia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백마 12마리가 펼치는 화려한 마상쇼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마상쇼는 '날으는 기마병'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유명 기마단 로렌조가 모스크바 군악 페스티벌 '스파스카야 바쉬냐'와 '말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진행한 행사로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로렌조 관계자는 "모스크바에서 우리 팀은 이모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며 "이모션은 기수와 말이 혼연일체가 돼 펼치는 공연이다. 매우 고난도의 화려한 묘기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으는 기마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수는 여러 마리의 말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다"며 "달리는 말 위에 서서 점프하거나 장애물을 통과한다"고 덧붙였다.

기마쇼를 관람한 한 시민은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다"며 "입장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 흔히 보던 서커스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며 "말과 기수 모두 아름다웠다"고 감탄했다.

/알렉산드르 투페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가장 지저분한 호텔 있는 도시는?

metro France

가장 지저분한 호텔이 몰려 있는 도시를 뽑는 설문조사에서 '파리'가 6위를 차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가 진행한 이번 설문은 호텔 인포 사이트 이용객 60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0개의 도시 중 6위를 차지한 파리는 10점 만점에 7.63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아테네(7.68), 런던(7.52), 상파울루(7.69)가 순위에 올랐다.

한편 도쿄와 바르샤바는 각각 8.93점, 8.76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호텔 이용객들은 이 두 도시에 위치한 호텔이 가장 깔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네스 콩도미네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강남·목동 문의 늘고 호가 뛰어

강남 재건축아파트 하루 새 1000만~2000만원
거래는 숨고르기… 연휴 끝나고 본격화될 듯

"이전에는 부동산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집이 팔리겠느냐 등의 집주인들 문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매물은 있느냐, 가격은 얼마냐, 싸게 구할 수 있느냐 등 구체적인 매수 문의가 대부분이었어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니까요."(강남구 개포동 K부동산)

"7·24대책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강남 재건축단지에나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문의조차 없었는데, 어제는 20~30통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전화가 많이 걸려온 게 처음이에요."(양천구 목동 B부동산)

7·24대책,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9·1대책까지 전방위적 부동산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금융위기 이후 꽁꽁 얼어 있었던 주택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호가 위주이긴 하지만 가격도 오르고, 무엇보다 물건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85건으로 작년 같은 달 (3142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중랑구가 3.5배 늘어난 391건이 거래됐고, 다음으로 서초구 336건(3.2배), 강남구 442건(3배). 송파구 443건(2.8배), 용산구 103건(2.7배) 순으로 집계됐다.

매매가 상승률도 높아졌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0.03%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8월 들어 0.12%로 상승반전됐다. 특히 재건축 상승세에 힘입은 강남권이 강세를 보였다. 강동구가 한 달 만에 0.67% 올랐고, 강남구도 0.51% 뛰었다.

강남구 개포동 K부동산 대표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달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2000만~3000만원 오른 가격에도 거래가 됐다"며 "가격 상승세나 거래량이나 부동산경기가 최고조였던 시절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던 때에 비하면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치동 삼성공인 관계자는 "9·1대책이 나오자마자 은마아파트 호가가 2000만원 껑충 뛰었다"며 "주민들은 안전진단 완화의 최대 수혜 아파트가 은마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추석 이후로 거래를 미루면서 그때 추가적으로 2000만~3000만원은 더 오를 것 같다"고 내다봤다.

대출규제 완화에도 꿈쩍 않던 목동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는 즉각 반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2만6629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적률이 단지별로 110~160%대로 낮은 데다, 목동 재건축 기본계획도 수립된 상태라 높은 사업성이 기대된다.

양천구 B부동산 관계자는 "목동 신시가지단지는 용적률도 낮고 주거여건도 좋아 강남권 못지않은 재건축시장의 블루칩"이라며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회수하거나 추석 이후 거래를 원하고 있어 문의는 많지만 가격 상승과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도시 추가건설 중단과 청약1순위 자격 완화 등 분양시장의 대변화도 예고되면서 신규공급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이달 분양을 앞둔 강북구 미아4구역의 신건영 꿈의숲 롯데캐슬 분양소장은 "분양문의가 9·1대책을 계기로 2배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정부가 돈줄을 풀어주고 동시에 각종 규제들도 완화하면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호가와 거래도 증가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예전과 같이 집값이 오르기 힘든 상황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 거래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공인중개사 찾은 시민 2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민들이 관계자와 상담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가능 시기를 종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등은 매수문의가 크게 늘고 매물이 회수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100대 기업, 추석前 납품대금 7조 지급

상여금 지급 등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협력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주요 대기업이 추석 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 한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3일 발표한 '2014년 100대 기업의 추석 전 납품대금 조기 지급계획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전에 주요 기업이 협력사에 앞당겨 지급해 줄 납품대금 지급규모가 7조 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조6339억원보다 25.9%(1조4581억원) 증가한 수치다.

95개 응답업체 중 63.2%인 60개사가 올해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35개사는 '조기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했지만, 평균 대금지급 기일면에서 하도급법에 규정된 60일보다 40일 가량 이른 21.7일로 나타났다.

'조기지급 계획이 있다'고 밝힌 60개사는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로 지급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음결제는 없었다.

주요 기업들은 추석을 앞두고 납품대금을 조기지급 하는 것 이외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생필품 구입시 할인혜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파워텍'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편성,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 줄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24개 협력사에 8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명절전 협력사의 자금압박을 감안해 납품대금 조기지급이 협력사의 자금사정과 추석경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조기지급의 온기가 2·3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도록 중견·중소기업 간에도 조기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

'아이폰 에어' 나오나
케이스 영상 화제

'새로운 아이폰6 비디오?'

애플 아이폰6에 대한 루머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품 케이스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등장했다.

해외 IT 전문매체 인피니트 프로핏은 2일 '새로운 아이폰6 비디오' 기사를 통해 오는 9일 공개예정인 애플의 아이폰6의 케이스로 추정되는 부품을 프랑스 블로거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흥미로운 점은 촬영자가 직접 아이폰6로 추정되는 케이스의 크기를 자로 측정하는 모습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5.5인치 아이폰6 케이스 크기는 세로 16cm 가로가 7.8cm 이며 두께는 0.7cm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5인치 아이폰6 제품명이 '아이폰 에어'로 불릴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은 4.7인치, 5.5인치 두 종류의 아이폰6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출시됐던 아이폰5S·5C처럼 아이폰6도 제품명이 나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아이폰6로 추정되는 제품.

market index <2일>

항목	지수	등락
코스피	2051.58	(-16.28)
코스닥	568.74	(+1.79)
금리(국고채 3년)	2.51	(-0.01)
환율(원·달러)	1018.50	(+6.50)

뉴스&뉴스

SKT '바른 ICT 키즈 교실' SK텔레콤은 2일 부터 SK브로드밴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어린이에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바른 ICT 키즈 교실'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대출액 13조원

●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을 뛰어넘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발권력을 동원한 한은의 대출금은 13조1571억원으로, 1년 전(7조9903억원)보다 64.7%나 증가했다.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조달용으로 3조4590억원을 지난 3월 정책금융공사에 저리 대출해준 데다가 지난해 6월부터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한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대상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김민지기자 minji@

휘발유값 비싼 곳 서울 중구

● 서울 중구가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2일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를 분석한 결과, 중구가 ℓ당 평균 2176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북구가 1802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고 밝혔다. 평균가격은 ℓ당 1917.27원이다.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하는 주유소는 강남구의 D석유(SK에너지)로 ℓ당 2365원이다. 가장 저렴하게 파는 곳은 광진구의 Y주유소(알뜰)로 ℓ당 1745원이다. /이국명기자 kmle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은행점포 1년새 270개 문닫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하나·국민·신한銀 40개 이상 줄여

지난 1년새 국내 은행 점포 20곳 가운데 한 곳에 해당하는 270곳이 문을 닫았다. 과거 외환위기 직후 5개 은행이 구조조정으로 사라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한국SC·한국씨티 등 9개 시중은행의 국내 점포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5101개다. 지난해 6월 말 이들 은행의 점포는 5370개였다. 1년 만에 269개(5.0%) 점포가 사라졌다.

/연합뉴스

씨티은행은 203개에서 134개로 69개를 줄였고, 같은 외국계 은행인 SC은행도 361개에서 311개로 50개 감축했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은 650개를 607개로 43개 줄였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41개씩 줄였다.

은행들은 점포 축소보다 규모는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인력도 조금씩 줄이고 있다.

씨티은행은 이 기간 4229명에서 3587명으로 642명(15.2%), SC은행은 5605명에서 5146명으로 459명(8.2%)의 직원이 감소했다.

8036명에서 7829명으로 207명 줄어든 외환은행은 전날 외환카드 분사로 587명(7.3%)이 줄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은행은 종전 2만1572명에서 2만1396명으로, 하나은행은 9400명에서 9280명으로 직원이 줄었다.

최근 1년간 이뤄진 점포·인력 구조조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

대동·동화·동남·경기·충청 등 5개 군소 은행이 한꺼번에 퇴출당하면서 1997년 말 7643개인 은행 점포는 1998년말 6662개로 981개(12.8%) 감소했다. 당시 은행원도 11만4619명에서 7만5604명으로 3만9015명(33.7%)이 줄어든 바 있다.

◆은행측 '비용 절감+금융환경 변화'

은행권의 점포·인력 축소는 비용 절감과 금융 환경의 변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 영업이 온라인 영업으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활용으로 바뀌면서 많은 인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입출금·이체는 인터넷뱅킹과 CD·ATM에서 75.5%가 이뤄졌다. 창구 거래는 11.2%로, 텔레뱅킹(13.3%)에도 못 미쳤다.

은행 노조들은 사측이 점포와 인력을 계속 줄이는 데 불안을 느끼고 있다. 당장 3일 예고된 금융노조 총파업의 이슈기도 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으로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고용안정도 파업의 주된 의제"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산업노동조합이 3일 총파업에 돌입해도 일선 은행 영업점은 대부분 정상 운영된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보험사, RBC 300% 육박 "재무 양호"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RBC비율 상승에는 당기순이익의 이익잉여금 적립과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발생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전분기보다 16.2%포인트 상승한 299.5%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생보사가 전분기 대비 19.1%포인트 상승한 317.6%, 손보사가 같은 기간 11.8%포인트 오른 264.9%로 나타났다.

이번 RBC비율 상승에는 가용자본 증가가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보험사는 당기순이익의 이익잉여금 적립(1조8302억원)과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발생(3조2248억원) 등 가용자본이 6조3974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자산증가에 따른 투자규모 확대로 요구자본은 5470억원 증가에 그쳤다. 생보사 요구자산은 전분기 대비 0.5%증가한 1048억원, 손보사는 4.5% 증가한 4423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전체 RBC비율은 보험업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최저기준(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RBC비율 취약 우려 보험사에 대해서는 증자와 후수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중소제조업 생산 넉달째 감소

IBK경제硏, 7월 생산지수 전년비 5.3%↓

국내 중소제조업 생산이 넉 달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국내 중소기업 3169곳을 조사한 결과 7월 중소제조업 생산지수가 115.7로 전달의 116.6 보다 0.7%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5.3% 줄어든 수치로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연구소는 중소제조업 생산이 부진한 이유로 내수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계절적인 여름 비수기까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와 화학제품, 기타운송장비 등의 생산이 지난 6월에 비해 각각 10.1%, 8.5%, 6.7% 감소했다.

가동률과 설비투자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72.8%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설비투자 기업 비율은 14.8%로 2.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3월 이후 지속 악화된 수주와 수익성, 재고는 소폭 개선됐다. 7월 수주는 전달보다 2.5%포인트, 수익성은 2.1%포인트 늘었고 재고는 0.3%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은 지난 6월보다 2.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IBK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늘어난 수주를 재고로 대체함에 따라 재고량은 감소했으나, 수주 증가폭이 크지 않아 생산과 가동률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며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기회복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신한은행, '스마트 인증' 서비스 신한은행은 스마트폰에 장착된 유심(USIM)칩으로 본인 인증을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 인증서비스'를 2일 내놨다. /신한은행 제공

임영록·이건호 징계 내일 결정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주에 경징계든 중징계든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를 경징계로 결정한 뒤 열흘 넘게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최 원장은 제재심 직후 KB사태가 봉합되기는 커녕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커지면서 금융질서 안정을 위해 경징계를 중징계로 올려 금융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향후 여파 등을 감안해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수용하되 KB내분 해결을 위한 경영진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민지기자

금융사기 증권사계좌 신고 즉시 지급정지

CMA통장과 위탁계좌 등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가 개편된다. 이는 최근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사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 등과 같은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과 경찰청은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핫라인이 운영되면 금융사기 피해자는 경찰청 112센터에 직접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112센터는 피해자와 거래 금융회사(증권사) 간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신고 접수와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다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증권사)를 알고 있으면 금융사 콜센터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또 영업시간 이후에도 콜센터 상담요원을 상시 배치해 심야시간과 휴일에도 금융사기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RS를 통한 지급정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금융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메뉴를 ARS 제일 앞쪽에 배치하고 상담원 연결 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선(先) 지급정지 조치 후 본인확인 절차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im1@

"액티브X 가이드라인 나온다"

미래부 9월 중순 예정

최근 액티브X를 개선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발, 9월 중순부터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웹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액티브X와 같은 비표준 인터넷 이용환경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액티브X 대체기술 적용 방안과 글로벌 웹표준(HTML5) 활용기술,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기타 부문에서는 웹 문자 입력 모드 및 웹 폰트에 대한 적용 방안을 설명한다.

웹 사이트 개발·운영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비표준 기술로 구현되는 기능의 웹표준 전환 방법에 대해 쉽게 파악하고, 국내·외 솔루션과 적용 사례 확인도 가능하다.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웹사이트 개선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용환경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책자와 이북(e-book) 형태로 제작해 15일 인터넷진흥원의 HTML5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양재 AT센터에서 웹 개발·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다양한 대체기술과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한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앞으로 HTML5.1 등 웹 기술의 발전 상황을 가이드라인에 지속 반영해 국내 비표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집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재계 1위 삼성 10조 매물 놓고 고민

한전 부지 매입 현대차와 신경전
상업시설 지으면 장기적으로 보탬

재계 1위 삼성그룹이 서울 코엑스 인근의 한전부지 매입을 놓고 고심 중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요지인 만큼 유·무형의 가치가 뛰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땅 매입에서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조 단위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재계 2위 현대차그룹 역시 이 땅을 노리고 있어 입찰 경쟁이 가속화할 경우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가능성이 크다.

2일 유명 투자 컨설팅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한전부지 인수에서 개발까지 최소 10조원 이상이 든다.

한전부지(7만9342㎡)의 입찰 하한가는 3조3346억원이다. 여기에 서울시에 내야하는 기부채납이 매각 하한가 기준 1조3400억원이다.

지상과 지하를 합쳐 총 연면적 30만평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을 적용할 시 3조원가량에 달한다.

세금·금융비용과 각종 부대비용 등 2조원을 추가하면 사업비는 적어도 9조6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경쟁사인 현대차가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개발 비용은 10조원이 넘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한전부지가 매력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강남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이 지역에 축구장 12배 규모의 쇼핑몰이나 도심형 리조트와 같은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그룹에 보탬이 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재계 1위 그룹이 서울의 랜드마크에 입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삼성그룹의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사업 규모나 인수액 등을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삼성과 현대차 두 곳 뿐이어서 매번 그룹명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한전부지 매입 부분은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젊은 층 겨냥 '갤럭시 알파' 출시

삼성전자,국내 스마트폰 중 가장 얇아

삼성전자가 젊은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탑재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알파'를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2일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 테두리를 적용한 슬림 디자인 스마트폰 '갤럭시 알파'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알파'는 6.7mm로 국내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

'갤럭시 알파'는 트렌드와 스타일에 민감해 제품의 디자인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 갤럭시 시리즈의 혁신 기능에 젊은 디자인 감성을 더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테두리에 적용한 고급스러운 재질의 메탈 소재를 정교히 가공 작업해 프리미엄 디자인을 완성했다. 국내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디자인을 통해 최상의 그립감과 휴대성을 제공한다.

119mm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 이동통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성능과 배터리 효율성을 개선한 옥타코어 AP를 채용해 고사양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에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2GB 램, 1860mAh 용량의 배터리, 1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채용했다.

한층 진화된 '지문 인식' 기능으로 웹사이트 로그인이 가능하며, 개별 콘텐츠를 숨길 수 있는 '프라이빗 모드' 기능도 개선했다.

이외에도 '심박 센서', 'S-헬스', '퀵 오토포커스', 'HDR'과 같은 '갤럭시 S5'의 다양한 혁신 기능을 그대로 지원하고 삼성 기어2, 삼성 기어 핏 등 웨어러블 기기와도 연동이 가능하다.

색상은 차콜 블랙, 프로스트 골드, 대즐링 화이트 3가지다. 향후 SKT 전용으로 슬릭 실버 색상이 출시된다. 출고가는 74만 8000원이다. /양성운기자 ysw@

"'갤럭시 알파' 구매하면 갤럭시탭4가 4만원대!" KT는 삼성전자 최초 메탈프레임을 적용한 국내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 '갤럭시 알파'를 3일 출시한다. 가입자에게 정품 배터리팩 무료 증정과 갤럭시탭4 8.0인치 와이파이 버전을 4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KT 제공

어린이 안심이 SK텔레콤과 KT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U-안심알리미 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일 교육부와 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 제공

SKT·KT "어린이 안전 걱정 마세요!"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17일 공동 출시한 'U-안심알리미 서비스'의 보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U-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3G 기반 안심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사용자가 특정지역 진입과 이탈 시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서비스다.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SK텔레콤, KT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의 운영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U-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긴급호출 기능이 있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나 경찰(112)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긴급 통화·문자(월 30분 250건) 기능도 제공한다. 단말기 크기도 어린이가 한 손에 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줄여 휴대 편의성을 높였다. 학교를 통해 가입할 경우 3년 약정 시 월 8800원(가입비, 부가세, 유심 포함)에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추석 특수 잡아라… 자동차 판매전 '치열'

현금 할인에 초저금리 할부 지원까지

추석 연휴 특수를 노린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판매전이 시작됐다. 각 업체들은 새로운 조건들을 추가해 수요자들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는 아반떼 판매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30만원 할인 또는 3.9% 저금리' 조건에서 이달에는 '30만원 할인 또는 1% 저금리+1% 캐시백'으로 변경됐다. 이를 적용하면 아반떼 평균 차량 가격(1600만원)을 기준으로 약 16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선수금 15%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 평균 할부원금 135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 할부 프로그램(36개월 할부, 금리 5.9% 적용) 대비 100만원 이상의 이자 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LF 쏘나타와 그랜저, 제네시스 쿠페, 제네시스, 에쿠스, RV 전 차종은 기본 할인 혜택이 없다.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더 다양한 조건을 내걸었다. 9월 올 뉴 쏘울 개인출고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500만원 상당 이탈리아 여행 상품권과 5만원 상당 가족 외식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침수 피해 차량 보유 고객(경쟁사 및 수입차 고객 포함)이 기아차를 구입하면 20만~30만원 할인해준다.

이밖에도 모닝을 구입하면 60만원 할인 또는 1.4% 저금리, K3는 50만원 할인 또는 1.0% 저금리를, K5는 100만원 할인 또는 1.4% 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K7과 스포티지R은 20만원 할인해주고 쏘렌토R은 150만원 할인해준다.

한국GM은 차종별로 최대 1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차종과 생산시점 별로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대차 아반떼.

무이자 할부와 1.9% 초저리 할부, 3.9% 또는 5.8% 초저리 할부와 최대 70만원의 특별지원 등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쉐보레 더블 오토 포인트(다마스, 라보 제외)를 시행(최대 30만 포인트)하고, 최근 폭우로 수해를 입은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쉐보레 차량을 구입할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9월부터 10월까지 뉴 SM7 Nova를 출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재구매 고객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SM7 차종의 재구매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7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 전 차종을 3회 이상 재구매한 고객에게는 최고급 스카프를 선물한다.

SM5를 구매할 경우에는 리어 글라스와 뒷좌석 윈도우 선 블라인드, 뒷좌석 독립 풀 오토 에어컨, BOSE 사운드 시스템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최대 89%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쌍용차는 렉스턴 W나 코란도 투리스모를 일시불 또는 6.9% 정상할부로 구매할 경우 전동식 선루프를 무상 장착해 준다. 저리할부(3.9~5.9%)를 선택하는 코란도 투리스모 고객에게는 2채널 블랙박스를 제공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SK렌터카, 서울역 지점 개설 SK네트웍스의 렌터카 사업 브랜드 'SK렌터카'는 서울역 종합안내소에 지점을 개설하고 고객 서비스에 나선다. 서울역 방문 고객들은 역에서 직접 렌터카 예약을 하는 것은 물론 역내 주차장에서 차량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K네트웍스 제공

재건축 연한 단축 '61만 가구' 수혜

정부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연한 단축과 안전진단의 기준 등을 개선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114(www.r114.com)의 조사에 따르면 먼저 최장 40년을 적용받았던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할 경우 전국에서 1987~1991년 준공된 61만4037가구의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2~8년 단축되며,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10년 단축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와 더불어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판단이다.

서울에서 1987년~1991년 준공된 총 19만4435가구 중 11만2665가구가 ▲노원구(6만5509가구), ▲도봉(2만6890가구), ▲양천구(2만266가구)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권은 ▲송파구(1만6486)를 제외하고 198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김두탁기자 kimdt@

르노삼성, SM7 노바 공개

3040만~3870만원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가 새로운 디자인과 편의장비를 갖춘 뉴 SM 7 Nova를 출시하고 준대형차 시장을 재공략한다.

뉴 SM7 Nova의 노바(Nova)는 '신성(新星)'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새롭게 떠오르는 유러피언 프리미엄 세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뉴 SM7 Nova는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르노삼성자동차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르노삼성자동차 프랑수아 프로보 사장은 "르노삼성은 연초 발표한 2016년 내수 3위, 품질 1위,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내의 최고효율 달성 등 3가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숨 가쁘게 달려오고 있다"며 "이제 뉴 SM7 Nova가 그 결실을 보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QM3부터 시작한 새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뉴 SM7 Nova는 듀얼 캐릭터 라인을 적용한 후드와 새로운 전면 범퍼 디자인, 라디에이터 그릴 등을 갖췄다. 또한 LED 주간 주행등을 적용했으며, 펄 그레이 컬러와 18인치 프레스티지 알로이 휠을 적용했다.

뉴 SM7 Nova는 미국의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인 워즈(Ward's)가 14년 연속 세계 10대 엔진으로 선정한 닛산의 VQ(V6)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국내 동급에서는 유일하게 전 라인업에 V6 엔진을 얹은 게 특징이다.

VQ25 V6 엔진은 최고출력이 190마력으로 4400rpm에서 24.8kg.m 최대토크를 낸다. ESM(Energy Smart Management)등 에너지 최적 제어기술을 적용해 10.2km/ℓ의 복합연비를 나타낸다. VQ35 V6엔진은 최고출력 258마력, 최대토크 33.7kg·m이며, 9.4km/ℓ의 복합연비를 보인다.

뉴 SM7 Nova는 VQ25 3개 트림, VQ35 2개 트림으로 구성했다. 가격은 VQ25가 3040만~3490만원(기존 SM7 2992만~3395만원), VQ35는 3520만~3870만원(기존 3419만~3819만원)으로 책정됐다. /임의택기자

맥도날드 먹으면 슈피겐 상품권

30일까지 '모노폴리 프로모션' 진행

맥도날도 세트를 먹으면 슈피겐 온라인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액세서리 글로벌 명품 브랜드 슈피겐은 30일까지 '모노폴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세트를 구입한 후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보드게임 '모노폴리'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4명중 1명이 당첨될 정도로 확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슈피겐은 총 5만명의당첨자에게 '온라인 상품권 1만원권'을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슈피겐의 공식 카페인 '슈피겐 루머스(www.sgprumors.com)'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spigenkorea)을 통한 이벤트도 벌인다. 30일까지 맥도날드 매장과 웹사이트에 방문해 슈피겐의 브랜드 로고를찾고 인증샷을 슈피겐 루머스 카페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33명에게 숄더백 '드레스덴'과 스마트폰 거치대 고급 가죽 스트랩을 선물로 증정한다. 슈피겐의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맥도날드 모노폴리 프로모션' 관련 이벤트 페이지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총 34명에게 백팩·숄더백, 파우치 등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행한다.

/이국명기자 kmlee@

“열정 있으면 없던 자리도 만들어”

이국명 기자의 취업토크

아르바이트천국 최인녕 대표

노력하면 누구든 전문가 가능
하루 30만건 채용공고 눈길
‘맞춤알바’ 등 모바일 앱 인기

“하루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알바천국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광고 문구처럼 이렇게 많은 일자리 중 여러분을 위한 자리 하나 없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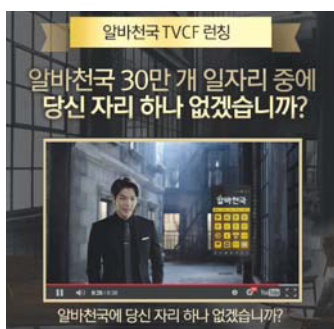
최인녕 아르바이트(알바)천국 대표는 사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단순히 시급을 받는 알바자리에서부터 전문직까지 다양한 일자리를 알바천국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실제로 알바천국의 누적 개인회원은 508만 명, 기업회원은 150만에 달한다. 하루 평균 등록되는 채용공고는 30만 건, 이력서는 15만 건이 넘는다.

“알바천국의 광고를 보고 위안을 얻었다는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구직자도 있고요. 덕분에 알바천국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것은 물론 기업 신뢰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클린알바 10계명’ 캠페인 눈길

높아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알바천국의 노력도 대단하다. 알바생 권리 보호를 위해 서울시 등과 함께 ‘클린알바 10계명’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등록증 확인 등 기업인증 절차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류나 유흥 등 일부 직종 업체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력서 열람 자체를 금지하고 10여명의 직원들이 24시간 채용공고를 필터링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2013 올해의 브랜드대상’(한국소비자포럼), ‘2014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노동부장관상’(한국언론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2014 THE PROUD 고객가치 최우수상품(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뻔히 보이는 사기 채용에도 속는 순진한 학생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직자 스스로도 조심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죠. 사기 공고가 급증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경고창을 띄우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중장년 채용관’ 화제

알바천국은 업계 트렌드 변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맞춤알바’ ‘꿀알바’ ‘채용매니저’ ‘특기별 알바’ ‘브랜드 알바’ ‘콜센터 알바’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잇달아 출시했다. 최근에는 이력서 사진도 간단히 찍을 수 있는 ‘포토스튜디오’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알바를 통해 ‘제2의 인생’ 설계에 나서는 베이비부머가 늘어나는데 맞춰 지난해 선보인 ‘중장년 채용관’도 화제다. 사무회계, 매장관리, 경비 등 중장년이 선호하는 알바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중장년층의 알바 시장 진입에 대해 세대 간의 갈등 등 좋지 않은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대 간의 경쟁이 아닌 청·장년층이 자연스럽게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늘어놓지만 현명한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족함과 절실함 열정 만든다”

최 대표는 스스로도 젊은 시절 다양한 알바경험을 통해 부족함과 절실함이 더해져서 열정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알바도 열심히 하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몸소 체험했다는 설명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보다 매력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는 인재를 위한 일자리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열정은 없던 자리도 만들어 냅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통신3사 공채 문 열렸다

SKT·KT·LG유플러스 600여명 채용

통신3사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모두 지난 1일부터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이번달 22일까지, KT는 18일, LG유플러스는 17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받는다.

채용 규모는 KT그룹이 400여명으로 가장 많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00명 안팎에서 신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원자들의 채용 이해를 돕기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충정로 브라운스톤 서울3층 LW컨벤션에서 ‘탤런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취업 선배들의 특강과 입사 혜택이 있는 역량 프리젠테이션 대회가 열린다.

KT는 영업관리·네트워크·R&D분야 200여 명, KTDS·KT스카이라이프 등 8개 계열사 15개 분야 200여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KT는 지역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학교별 채용 설명회를 전국 38개 대학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KT스타 오디션’이란 탈스펙 전형도 도입된다. KT그룹 채용설명회는 13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석·박사 대상 R&D 분야 채용 설명회는 20일 서울 우면동 융합기술원에서 열린다.

LG유플러스는 현장형 인재 발굴을 위해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등 9개 지역 근무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캠퍼스 캐스팅’을 상반기에 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취업 박람회는 15일부터 양일간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개최된다. 박람회에서는 희망 직무 소개와 현업 선배의 멘토링 행사가 열린다.

/장윤희기자 unique@

‘면접 복장은 이렇게’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4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를 찾은 학생이 면접 복장 컨설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男 삼성전자 女 CJ제일제당

취업 선호 기업 1위

남녀 대학생이 꼽은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CJ제일제당이 각각 1위에 올랐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는 최근 전국 4년제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남녀 학생 1511명을 대상으로 ‘100대 기업 고용브랜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남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응답률 19.8%로 1위에 올랐다. 현대자동차(11.5%), 포스코(10.4%), 한국전력공사(10.1%), 기아자동차(7.9%) 등이 뒤를 이었다.

CJ제일제당(7.4%), LG전자(6.9%), 대한항공(6.7%), SK텔레콤(5.8%), 아시아나항공(5.6%) 등도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 상위 10위에 올랐다.

여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에는 CJ제일제당(18.9%)이 꼽혔다.

아시아나항공(14.6%)과 대한항공(14.4%) 등 국내 주요 항공사가 나란히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13.9%), 포스코(10.0%), 한국전력공사(9.0%), KB국민은행(8.6%), 롯데쇼핑(8.4%), 제일모직(7.6%, 7월 1일자로 삼성SDI로 합병), NH농협(6.8%) 등에 대한 선호도 이어졌다.

선호하는 기업 선택 이유로는 남학생은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근무환경(45.6%)’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여학생들은 ‘기업 대표의 대외적 이미지(52.3%)’라는 대답이 많았다.

최창호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운영위원장은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문화는 물론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복지제도·근무환경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대입 수시 모집 6일 스타트

올핸 한 차례… 대학별 일정 꼼꼼히 체크해야
전체 65%… 대부분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201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6일 시작된다. 전형 기간은 6일~12월 4일이다.

올해 수시부터는 원서 접수가 9월 6~18일 한차례로 통합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는 수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새롭게 시행된다.

지원 횟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회까지 제한되고 등록과 관계없이 수시 충원합격자도 정시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대학 및 전형, 모집단위 선택에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

◆ 첫 감소… "강점에 맞춰 전형 대비"

올해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의 65.2%인 24만1448명으로 지난해보다 9772명 줄었다. 이는 정부의 대학별 고사 및 적성 시험 폐지·축소 유도 정책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시 모집인원이 줄게 됐다. 하지만 대입 선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시 지원은 필수가 되고 있다.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20만3529명으로 지난해보다 급증했고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67개교에 7230명으로, 총 수시모집 인원의 3.0%에 달했다. 반면 논술 모집인원과 적성시험 모집인원 수는 줄었다.

논술 모집인원은 1만7417명으로, 지난해 비해 117명 감소했고 적성시험 모집인원은 5835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3585명 급감했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 연구소 오종운 평가이사는 "2015 대입 수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강점에 맞춰 학생부(교과/종합)와 논술, 특기 등의 전형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5학년도 성균관대 수시지원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입학 관련 발표 자료를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에 맞춰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은 서류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토익, 토플 등 공인어학성적이나 교외 수상실적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가 0점 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

◆ "6월 모의수능 3등급 이내면 논술전형"

수시 지원은 최대 6회로 제한됐기 때문에 성적 만큼 신중한 지원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오 이사는 "수능 등급 조건이 지원 대학 기준에 도달해야 하고 지원 대학별로 대학별고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시 지원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팁을 제시했다.

이어 "학생부 교과 성적을 상대적으로 파악해 지원 전형에 맞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시 지원 대학을 정할 때는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6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적게는 3개 대학, 많게는 6개 대학 정도를 정하고, 자신의 학생부 성적과 대학별고사 준비 정도 등을 체크해 최종 지원 대학·전형·모집단위를 선택하면 된다.

오 이사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별로 4개 영역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이면 논술 중심 전형, 4~6등급이면 적성 또는 면접 중심 전형이 합리적인 지원"이라고 분석했다. 인문계는 6월 모의 수능 기준으로 국수영 평균 3.0등급, 자연계는 국수영탐 평균 3.5등급이 지원 하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형별로는 평소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수시 논술 중심의 일반전형과 정시까지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적으로 어학이나 수학, 과학 등의 특기 능력이 뛰어나면 특기자 전형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오 이사는 "올해는 중위권 이하 대학들의 경우에 어학특기자 전형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을 참고해 합격선 상승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1667명 모집… 지역인재 전형 신설

남서울대는 수시모집 비율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감소한 65%로 총 1667명을 모집한다.

수시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전년도 1304명에서 1058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은 전년도 150명에서 170명으로 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1단계 전형요소 반영비율은 서류평가 100%이며, 2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40%, 면접 60%를 반영한다. 수험생들의 성적보다 고교생활과 잠재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고 있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 학생부 중 비교과 봉사시간을 10% 반영하고 있는데, 학생부 기준을 2014년 8월31일 기준으로 누적봉사시간 58시간 이상 시 만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정원내 특별전형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인재전형 150명을 뽑는다.

이밖에도 올해 대학구조조정을 통해서 학과의 명칭을 환경조형학과는 유리조형디자인학과로, 스포츠경영학과는 스포츠비즈니스학과, 운동건강학과는 스포츠건강관리학과로 변경했다. 영어·일본어·중국학과는 글로벌지역문화학과(영미문화전공·일본지역전공·중국지역전공)로 통합했고, 세무학과와 부동산학과는 세무부동산학과로 통합했다. 이와함께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뷰티보건학과를 신설했다.

수시 원서접수는 6일부터 18일까지이며 지원자들은 22일 오후 6시까지 자기소개서를 입력해야 한다. 문의:041)580-2250~9

1235명 선발… 최저학력기준 전면 폐지

성신여대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52.6%인 1235명을 선발한다. 모집 전형은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특기자/실기 전형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11일부터 16일까지다.

성신여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 및 심층면접 등의 대학 자체 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전형에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다.

모집전형별로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 중 확고한 목표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 전공분야 진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우수자, 농·어촌학생(정원외),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 기회균형선발(정원외)로 구성됐다.

성신체인지 전형과 성신자기주도형인재 전형을 통합한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으로는 총 454명,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기회균형선발 등으로 총 121명을 선발한다.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2단계로 나누어 심층적인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학생부(교과) 전형은 409명을 뽑는 일반학생(교과) 전형과 국가보훈대상자 5명, 농어촌학생 15명, 특성화고교출신자 2명, 기회균형선발 3명, 특수교육대상자 3명 등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구성됐다. 이중 일반학생(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밖에도 영어·독일어·불어·일본어·중국어 등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이 있는 학생은 36명을 선발하는 어학우수자 전형, 예·체능계 분야의 학생들은 일반학생(실기) 전형과 예체능실적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면 된다. 문의: 02)920-2001

면접 중요… 일반전형 학생부 반영 비율 확대

한세대학교
HANSEI UNIVERSITY

한세대학교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47.5%인 304명(정원내 267명, 정원외 37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학생부 반영 비율 확대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다. 지난해 일반전형의 학생부 반영 비율은 50%였는데 올해 60%로 확대됐다.

183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은 모든 학과에서 1단계 학생부 100%로 3배수를 선발, 2단계에서 학생부 60% 및 면접고사 40%를 반영한다. 사회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상 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섬김인재 전형은 사회복지학(5명)에서 2단계 전형으로 선발한다.

사회기여와 배려자 전형은 신학(1명), 기독교교육학(1명), 전자소프트웨어학(2명), 정보통신공학(2명)을 2단계 전형으로 선발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은 신학(1명), 기독교교육학(1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 전형에는 특성화고교출신자 전형과 농어촌학생 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있으며 총 37명을 모집한다. 특성화고교출신자 전형은 신문방송학(1명), 광고홍보학(1명), 경영학(1명), e-비즈니스학(1명), IT학부(1명)를 선발한다.

실기고사는 16~18일, 면접고사는 25일 실시된다. 문의:031)450-5051~4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없애고 서류로 100% 선발

DKU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단국대학교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수시는 구술면접·적성고사를 폐지하고 수시전형(정원내)은 2014학년도 13개에서 2015학년도 3개 전형으로 간소화했다.

수시모집전형은▲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죽전 380명, 천안 495명) ▲학생부종합전형(죽전 412명, 천안 238명) ▲논술우수자전형(죽전 400명) ▲실기위주전형(죽전 62명, 천안 180명)으로 나뉜다. 인문·자연계열 간 교차지원은 가능하나 지원 모집단위별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인문 국·영·수·사/자연 국·영·수·과)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는 과목별 가중치가 적용되므로 본인 성적에 유리한 반영 조건을 찾고, 최저기준 반영 및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은 학생부 100%를 반영한다. 학생부교과우수자는 서류 평가나 대학별고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고교 과정동안 학생부 등급 관리를 충실히 해온 수험생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전년도 'DKU인재사정관전형'이 'DKU인재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를 일괄 합산해 서류 100%로 선발하며 면접고사는 폐지됐다.

논술우수자전형은 학생부 40%, 논술 60%를 일괄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문의 : 죽전캠퍼스 031)8005-2550~3, 천안캠퍼스 041)550-1234~7

학생부 100% 전형… 수능 최저학력 적용

덕성여대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618명을 모집한다.

일반전형에는 ▲학생부100%전형 ▲일반학생전형이 있다. 특별전형은 ▲덕성인재전형 ▲사회기여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특성화고교전형▲희망나눔전형으로 나뉜다.

주요 전형을 살펴보면 학생부100%전형으로는 239명을 선발한다. 반영 교과목은 인문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의상디자인학과는 국어·영어·사회 등 3개 과목, 자연과학대학·정보미디어대학은 수학·영어·과학 등 3개 과목이다. 학생부100%전형은 우리 대학에서 유일하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256명을 모집하는 일반학생(논술)전형은 학생부 60%, 논술 40%를 반영한다. 학생부 반영 교과는 학생부100%전형과 동일하며 논술고사는 문제에 대한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논리적 표현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명목상 반영 비율은 학생부가 더 높지만 학생부 5등급 이내 학생의 경우 논술고사의 실질 반영 비율이 더 높다.

원서접수는 12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www.ds.ac.kr)을 통해 실시되며 일반학생전형 논술고사는 11월 22일 치러진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특별전형 11월 7일, 일반전형은 12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02)901-8189

일반학생전형 418명 모집… 제출서류 간소화

서울여자대학교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58.7%인 1072명(정원내 977명, 정원외 95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1·2차 구분 없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전형으로는 일반학생전형에서 418명, 학생부종합평가전형에서 255명, 논술우수자전형에서 150명을 뽑는다.

면접 진행 여부에 따라 단계별전형과 일괄합산전형으로 나뉜다. 일괄합산전형은 일반학생전형, 논술우수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이 있다. 그 외 학생부종합평가전형, 기독교지도자전형, 고른기회전형,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기회균등전형(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은 모두 단계별 전형이다. 일괄합산전형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다.

일반학생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성적 70%, 서류종합평가 30%를 일괄 합산해 선발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 반영 비율이 70%로 확대(전년도 50%)됐고 학생부교과성적(30%)을 일괄 합산해 선발하며 논술은 통합교과형 문제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맞춰 사고력, 논리적 이해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진행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서울여대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공통양식)만 받는다. 다만 학생부종합평가전형에서 교사추천서(공통양식)를, 기독교지도자전형에서 목회자추천서, 세례증명서를 추가로 받는다.

올해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국어(A/B), 영어, 수학(A/B) 3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반영영역 각 4등급 이내)여야 한다. 문의:02)970-5206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가수 장미화 시술

원로 가수 장미화가 최근 악화된 디스크 질환으로 엠넷 '댄싱9 시즌2'에서 팀닥터 병원을 맡은 강남초이스병원에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았다.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장미화는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갑자기 악화된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강남초이스병원에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강남초이스병원 원장은 장미화의 상태를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국소 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위치시킨 후 10분 가량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과 신경 성형술을 시행했다.

시술 후 탈출된 추간판이 수축하면서 제자리를 찾았으며 장미화는 치료 당일 통증이 호전돼 곧바로 퇴원했다. 현재 장미화는 방송활동을 무리 없이 하고 있다.

또 장미화 시술 전에는 국내 최고 보컬인 가수 휘성과 배우 윤계상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다 강남초이스병원에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았으며 현재 큰 문제 없이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성태(왼쪽) 강남초이스병원 원장과 가수 장미화.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허리 디스크 고주파 방식으로… 방송활동 지장 없어

이처럼 4년 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강남초이스병원이 시행한 고주파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열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이다.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강남초이스병원은 고주파 열을 이용해 치료하는 고주파 수핵 감압술과 특수 제작된 주사기를 이용해 디스크 질환의 병변 부위에 약물을 투여하는 신경 치료술도 시행 중이다.

특히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하고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실시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중기 이상 또는 말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는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고주파 열 치료나 고주파 특수 내시경으로 치료가 어려운 오래된 퇴행성 중기 디스크, 협착이 동반된 디스크 환자들과 수술이 어려운 성인병 환자들에게는 경막외로 내시경을 집어넣어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를 한다.

또 강남초이스병원은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와 도수치료사·운동치료사·물리치료사 등 4명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02)875-2200·홍대 02)336-2200·여의도 0)786-2200·강서 02)2698-22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강강술래, "3일 택배 마감"

최대 50% 할인… 정육·가공식품 파격가 판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3일 오후 2시까지 품격과 정성을 담아 최대 50% 할인 판매중인 추석 선물세트를 택배 마감한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kg)는 5만원, 한우불고기2호(1.5kg) 7만원, 강강양념1호(16대) 9만원, 강강실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kg) 9만원 등에 판매한다.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kg·13만원),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등심·각0.7kg·15만원), 한우찜갈비세트1호(3.2kg·18만원) 등 프리미엄 세트도 특가에 판다.

기업체나 단체구매 선물로 인기가 높은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0원, 방부제·조미료·발색제를 넣지 않은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는 5만1600원이다.

특히 이른 추석을 맞아 열전도율이 낮아 냉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고급원단과 이전보다 두툼한 단열재를 사용한 보냉가방을 사용했다. 프리미엄세트는 진공포장보다 3일 가량 더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MAP(가스치환) 포장'을 통해 신선배송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외식을 계획하는 고객을 위해 연휴 동안에도 정상영업을 한다. 선물세트 현장 판매도 진행한다.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서초점과 여의도점은 한우모둠구이·왕양념갈비·한우광양불고기, 역삼점은 왕양념갈비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증정하는 '2+1 행사'를 벌인다. /정영일기자

모델 캐릭터 살린 광고 주목

극한바나나, 장보리 차… 제품과 환상 조합

최근 국내 식·음료업계에서 모델의 캐릭터와 제품의 차별화된 특성을 잘 살린 광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나 예능 등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인기 캐릭터의 특징을 살린 광고 등이 소비자들에게 재미와 공감을 선사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나 선호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일유업의 가공유 브랜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는 SNL의 인기 프로그램 '유병재의 극한직업'을 '유병재의 극한바나나'로 재탄생 시킨 동영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동영상은 지난 2007년 바나나우유가 노란색이라는 고정관념에 맞서 하얀 바나나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마케터 백부장의 스토리로 큰 화제를 불러모았던 '백부장'편을 7년만에 리메이크한 버전이다.

이번에는 젊은 세대의 감성을 반영해 전편의 사무실·교무실·편의점 상황에 유병재가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한 '놀이터'편을 추가해 더 큰 웃음코드를 자극했다. 온갖 굴욕적인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진실을 더욱 코믹하고 위트있게 주장하는 유병재의 모습에 힘입어, 공개 8일만에 온라인 조회수 100만뷰 돌파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 이름이 제품명과 흡사하거나 특정 영화를 패러디해 캐릭터의 독특한 특징을 담아 제품을 돋보이게 한 광고도 주목을 받고 있다.

웅진식품의 곡물차 '하늘보리'는 인기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주인공 장보리 역을 맡은 배우 오연서가 등장하는 TV 광고로 눈길을 끌었다. 일상생활에서 열 받는 상황을 하늘보리가 식혀준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리가 보리를 마신다'라는 재치 있는 설정이 재미를 더했다.

배우 류승룡을 내세운 BBQ의 '빠리치킨' 광고도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을 패러디해 카사노바로 등장한 류승룡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오크통을 어깨에 메고 '빠리치킨'을 불 위에서 직접 조리하는 등 코믹하면서도 섹시한 빠리지엥의 모습을 인상 깊게 표현했다. BBQ 측은 지난달 광고 방송 후 '빠리치킨'의 하루 평균 매출이 500% 가량 상승하는 등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정영일기자 prms@

광채 느껴지는 피부 표현 강조가 대세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가을·겨울에는 피부를 광택과 윤기가 가 나게 유지시켜야 한다.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맥(MAC)이 발표한 2014년 가을·겨울 메이크업 트렌드에 따르면 반짝이고 윤기가 나면서도 매트한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 얼굴의 윤곽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발표된 뷰티업계의 메이크업 화보를 통해서도 이런 트렌드를 엿볼 수 있다. 바비 브라운은 올 하반기 베이스 메이크업 트렌드로 '실크 스킨' 콘셉트를 제안하고 새로운 모델 박지윤(사진)의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 속 박지윤은 심플한 블랙 원피스에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도 윤기있고 매끈한 피부 하나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업체 측에 따르면 박지윤의 실크 스킨을 연출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용한 제품은 수분감이 풍부한 자외선 차단 베이스 'SPF50 프로텍티브 페이스 베이스'와 신제품 '수분 코팅 파우더 파운데이션' 단 두 가지다. 이처럼 메이크업 단계를 단순화해 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는 것이 포인트다.

슈에무라도 9월 신제품 '더 라이트벌브 올레오-팩트 파운데이션' 출시를 앞두고 윤기 나는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가 돋보이는 배우 소이현의 화보를 공개했다. 소이현은 이번 화보에서 깔끔한 헤어스타일에 어깨 라인을 드러낸 채 투명하면서도 광채 나는 피부 메이크업으로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인으로 청순하면서도 이지적인 분위기를 냈다. 소이현의 피부 표현에 사용된 신제품 팩트는 쿠션 파운데이션의 장점인 광채와 커버력은 살리면서 끈적임과 다크닝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리리코스 화보 속 고아라는 촉촉하고 매끈하게 연출한 피부 위에 포인트 메이크업을 극대화해 고혹적인 팜므파탈로 변신했다. 결점 없는 피부에 여린 분홍색의 립글로스를 바르고 눈에는 브라운과 오렌지 컬러 아이섀도우를 사용해 화려한 느낌을 살렸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8방향 움직임 깔끔 면도"

필립스, 하이엔드 면도기 '9000시리즈' 론칭

필립스코리아가 하이엔드 면도기 '필립스 9000시리즈 면도기' 6종을 내놨다.

필립스코리아는 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품 출시 간담회를 열고 "센소터치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9000 시리즈는 필립스 면도기의 75주년 역사와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어떠한 얼굴 굴곡에서도 미세 수염을 잡아낼 뿐 아니라 한 번의 움직임으로 더 많은 수염을 정확하게 잡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기술인 세계 최초 '8방향 무빙헤드 시스템'은 회전형 면도기 헤드의 장점을 극대화한 기술로 8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면도헤드가 얼굴 구석구석 윤곽에 맞게 밀착 면도해준다. 또한 독창적인 V자 구조로 설계된 45개의 'V트랙 면도날'과 기존 필립스 면도기 대비 30% 얇아진 면도망을 사용해 모든 종류의 수염을 놓치지 않는다고 필립스코리아 측은 설명했다.

개인 취향과 면도 부위에 따라 3단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으며, '아쿠아텍' 기술로 건식면도는 물론 습식면도까지 가능하다. 몸체에 달린 LED 디스플레이는 배터리 잔량과 면도 헤드 교환 시기 등을 알려준다. 1회 충전으로 50분, 최대 17일간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32만~62만원.

/박지원기자 pjw@

아사히 수퍼드라이 4만잔 돌파 방송인 최희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엑스트라 콜드 바 서울점에서 열린 '아사히 수퍼드라이 4만잔 돌파 기념 이벤트'에 참석해 맥주 따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희는 초청 소감과 인사말을 간단하게 건넨뒤 기념 촬영을 시작으로 총 5단계에 걸친 '엑스트라 콜드바'의 체계적인 맥주 추출 노하우를 배웠다. /손진영기자 son@

'똑같은 건 식상'… 주얼리도 '믹스 매치'

한쪽만 차는 '싱글 이어링', 귀 뚫지 않는 '이어 커프' 각광

올 가을 주얼리 트렌드로 여러 개의 귀걸이를 착용하는 믹스 매치 이어링이 주목 받고 있다.

똑같은 모양의 쌍을 양 쪽에 했던 기존 패턴과 달리 서로 다른 형태의 귀걸이를 매치하거나 아예 한 쪽만 착용해 포인트를 주는 싱글 이어링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연예인이 착용한 이어커프나 분리가 가능한 투웨이 이어링도 정형화된 연출에서 벗어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여성들에게 각광 받고 있다.

귀걸이 세 개를 한 세트로 구성한 미니골드의 리프플라워 믹스앤매치 귀걸이는 자신 만의 조합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케 투웨이 귀걸이는 하단에 큐빅들이 반달 모양으로 촘촘히 박혀있어 화려함을 뽐내며 클러치 형태라 단아한 느낌도 연출할 수 있다.

디디에두보는 '2014 사일런트 밸런스' 컬렉션을 통해 알파벳 'D'를 형상화한 구조적인 디자인의 롱 드롭 싱글 이어링을 선보였다. 쇄골에 닿을 듯한 길이감으로 여성스러움을 배가 할 수 있는 제품이다.

/디디에두보·해리메이슨 제공

특히 가을을 맞아 진주 주얼리도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이번 시즌에는 진주 귀걸이 또한 기존의 클러치 형태의 정형화된 아이템이 아니라 길게 늘어지는 드롭형 귀걸이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해리메이슨의 진주 귀걸이는 물결처럼 흐르는 골드라인에 화이트 진주로 단아한 느낌을 살린 디테일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지난 여름 열풍을 몰고 왔던 이어커프 또한 가을에도 인기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어커프는 귀를 뚫지 않고도 귀에 살짝 걸쳐 멋을 낼 수 있는 주얼리 아이템이다.

심플한 이어링과 이어커프를 함께 착용하거나 이어커프를 착용한 반대편 귀에는 다른 스타일의 이어링을 매치해 언밸런스한 멋을 연출할 수 있다.

이민숙 미니골드 상품기획팀 과장은 "올 가을 주얼리 트렌드는 믹스앤매치로 기존의 정형화된 아이템에서 벗어나 언발란스나 레이어링하는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믹스 매치 아이템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이화의료원, 인재개발센터장에 박은애 교수

주웅 홍보실장·정지향 임상의학연구센터장 등 발령

이화여대 의료원이 최근 인사 발령을 통해 박은애(사진)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인재개발센터장에 임명했다.

박은애 센터장은 1988년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해왔다. 또 정진료센터장과 의무부장을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병원은 병원 홍보실장으로 주웅 산부인과 교수를 선임했다. 정지향 신경과 교수와 전루민 안과 교수는 각각 의료원 임상의학연구센터장 겸 병원 임상시험센터장, 안과 임상과장으로 발령됐다.

/황재용기자

새로 나온 책

자기계발
뇌는 왜 삽질을 시킬까
데이비드 디살보/청림출판

책은 '생각에 대한 생각', 즉 '메타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생각을 조종한다는 것은 바로 메타인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메타인지 능력을 개선시킨다면, 즉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면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취업 3년 전 선현주/왕의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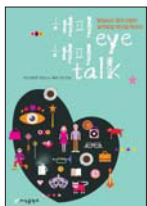
저자가 취업 준비생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일을 3층짜리 건물 구조로 이해하기, 기업과 산업 보는 안목 기르기,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관점 전환하기, 취업 시기를 고려해서 휴학 시기 정하기 등 20대들이 고민하는 모든 이슈를 '취업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살펴본다.

정치·사회
실버타운 간 시어머니 양로원 간 친정엄마 이한세/골드북스

100여 명 이상의 입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전국의 실버타운 30곳을 직접 방문하고 쓴 실버타운 정보서다. 비용, 지리적 위치, 식사 및 생활 서비스, 의료 및 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각 실버타운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에서의 생활까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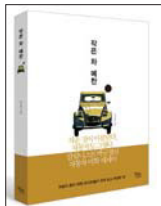
가정·육아
버럭하는 남편, 묻어두는 아내
김형기/창해

매사 쏟아 붓는 남편과 모든 감정을 묻어두는 아내, 이들이 자주 부딪힌다면 '성격 차이' 때문일까. 저자는 부부라는 관계 이전에 상처 입은 한 개인으로서 정신적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부부의 갈등과 고질적 문제까지 저절로 풀린다고 강조한다.

건강
해피eye 해피 talk
김안과병원 블로그팀/지식공작소

지난 8년간 김안과병원 팀블로그 '옆집eye'에 올라온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은 유쾌하고 감동적인 사연과 눈 건강 정보를 모았다.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딱딱한 의학서 형식을 탈피한 에세이 형태로 구성했다.

외국어
미국 교환학생, 알고 보니 쉽네!
최지아/책읽는 귀족

네 명의 소녀들이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과정을 꼼꼼히 들려준다. 호스트와의 갈등 문제, 그 원인과 해결책, 힘든 교환학생 생활을 극복해 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미국 교환학생 사용 설명서'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만 콕콕 집어 알려준다.

취미
작은 차 예찬 박규철/가지

미니멀리즘 트렌드에 맞게 세계 자동차계에서도 작은 차가 대세다. 그러나 이 책에 등장하는 '작은 차'란 경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고 간단한 차, 그래서 경제적이고 재미난 차를 모두 포함한다. 저자는 작은 차라는 주제를 통해 자동차의 역사와 본질적인 기능과 디자인, 즐거움, 미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경제·경영
부하직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
박태현/책비

리더십과 조직개발 전문가인 저자가 너무나도 다른 리더와 부하직원의 마음에 대해 썼다. 리더와 부하직원이 대립하게 만드는 문제점들과 원인, 해결법을 26가지로 나눠 담았다. 리더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부하직원들과의 건강한 소통을 이끌어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에세이
오늘, 그 사랑이 보입니다
와타나베 가즈코/21세기북스

일상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 중 가장 중요한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즉 '자기긍정'이다. 저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좋은 말들보다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느껴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박지원기자

'한비자'로 배우는 통찰·처세술

혼란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제시

한비자의 인생수업
임재성/평단문화사

전국시대 한(韓)나라에 학문과 문장력은 탁월하지만 말을 더듬는 한 남자가 있었다. 당시 한왕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들에게 휘둘리고 있었다. 남자는 한나라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한왕에게 부국강병의 모략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자신의 주장을 십만여 자에 이르는 저작으로 만들었고 이를 읽은 진왕 정(훗날의 진시황)이 남자를 자신의 인재로 얻기 위해 한나라를 공격했다.

이 이야기는 이름난 법가 사상가인 한비의 이야기다. 한비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악한 존재이며 교육과 법으로 인간을 교화·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문인과 각국의 제왕들에게 공자의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을 책으로 담아 군주를 위해 저술한 책이 바로 '한비자'이다. 실제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이 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는다.

한비자는 유가 학설에 반대하면서 군주가 전제독재로 신하를 통제하는 데 이론과 방법을 제공하는 '군주를 위한' 책이었다.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위험성이 있다. 저자는 이를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만 선별해 자기계발 요소로 제시한다.

이 책은 한비가 추구한 법가 사상의 토대인 세(勢)·법(法)·술(術)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세의 덕목은 자기 삶에 권세를 갖고 담대하게 원하는 인생을 나아가도록 돕는다. 법의 덕목은 정의와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술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여기에 좀 더 균형 잡힌 삶으로 리드할 수 있도록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도(道)'의 덕목을 덧붙였다.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한비자를 쉽게 풀어 해설하고 우리 삶과 밀접한 다양한 예제를 더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비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혼란스러웠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 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제왕이 되는 법을 터득해보자.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길에서 묻다

인생을 마라톤 또는 여행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점, 생각보다 길고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많다는 점도 비슷하다. 눈 앞의 일희일비를 경계해야 함을 돌려 말할 때도 이 비유는 적절하다. 우리는 항상 어딘가로 향한다. 목적지가 명확할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어딘가로 마냥 걸을 때도 있다. 개인마다 향하는 곳은 다르지만, 그 길은 언젠간 한 번은 만나게끔 이어져 있다. 나는 어디쯤이고 어딜 향하고 있는가. 내 옆엔 누가 있고 앞으로 누굴 만날까. -'옛길의 유혹, 역사를 탐하다'(박정원/내안에뜰) 중-

/김학철기자 kimc0604@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

화제의 책 — 상처와 아픔, 그리고 용기에 관한 이야기

건너편 섬 이경자/자음과모음

저마다의 슬픔을 가진 여자들은 결코 그 슬픔을 해소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값싼 위로나 끝없는 현실 도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감정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더욱이 이들은 주의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도 이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고 희망과 긍정을 엮어낸 씨줄과 날줄을 끊임없이 찾는다. 슬픔의 이면에 존재하는 아픔을 이겨내려는 강인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스스로 자기구원이라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고 슬픔이 지속되는 생활 속에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괜찮다'라는 용기를 자신에게서 얻는다.

자신의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한 느낌을 주는 상처, 그 낯선 경험이 반복되지만 희망을 줄 간절함이 결국 이들을 앞으로 나가게 한 것이다. 슬픔이라는 정서가 긍정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현실을 혼자서 깨달은 셈이다.

딱딱하게 말라붙은 상처들과 진저리치는 고독의 언저리에서 스스로의 자기 고백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살아온 길에, 그리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지금 그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

"누구나 왕년에 한 가닥 했잖아요"

신곡 발표 허세남으로 돌아온 김 종 민

가수 김종민(35)이 허세남으로 돌아왔다.

'1박2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등 예능프로그램에서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웃음샘을 자극했던 그가 캐주얼 정장에 독특한 액세서리를 매치한 의상을 입고 본업인 가수로 돌아왔다.

김종민은 지난 2011년 4월 첫 솔로 싱글 '오빠 힘내요', 2012년 5월 '두근두근'에 이어 2년 3개월 만인 3일 세 번째 솔로 싱글 '살리고 달리고'로 가요계를 노크한다.

"예능인 생존 위해 독서량 줄여 공감할 수 있는 음악 해야죠"

◆ 허세 가득 '살리고 달리고'

'오빠를 만나려면 번호표를 뽑으세요' '아 이것참 피곤하네' 등 이번 싱글곡의 가삿말을 듣고있으면 자연스럽게 '허세'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허당 김종민을 떠올리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예전에 잘 나갔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노래예요. 누구나 왕년에 한 가닥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노래는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허세를 부리지만 정작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은 예능인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그는 국내 최장수 혼성그룹 코요태 멤버로 활동하며 가요계를 주름잡았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발표하는 앨범마다 수십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대박행진을 이어갔다.

"그땐 가수 김종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예능인 김종민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본업은 가수인데 말이죠.(웃음) 이번 앨범은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욕심과 젊은 친구들에게 가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음악

예능인보다 가수로 대중의 기억속에 남고 싶다는 김종민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을 선택했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로 구성했다. 연령층 구분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웃음을 자아내는 노랫말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매력적이다.

그는 "평소 코요태가 아닌 솔로 가수로 할 수 있는 음악을 고민하던 중 이번 음악을 듣고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며 "중독성 강한 리듬과 흥을 돋우는 음악과 댄스로 대중을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유행하는 시루떡 춤과 바운스에 중점을 뒀다"며 "목 꺾기는 지금 10대들이 못봤을 것 같지만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데뷔 15년을 맞은 그는 "그룹이 아닌 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스타일을 찾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며 존재감을 알리는 반면 자신의 본업이 가수이기에 가수적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중이다. 그렇다면 김종민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다.

"한치 앞도 모르는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일에 도전해 보고싶어요. 우선 코요태 멤버로서는 단독 콘서트를 꼭 한 번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신인 가수를 발굴하는 프로듀서를 하고 싶죠. 10년 뒤 바뀔 수도 있지만.(웃음)"

◆ 4차원 김종민

그는 KBS2 '1박 2일'에서 시즌1부터 시즌3까지 고정 멤버로 출연했다. 한 박자 느린 반응, 빈약한 어휘력으로 '바보' 캐릭터를 만들어 대중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모습을 완성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공익근무요원을 마치고 예능에 복귀한 김종민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과거의 예능감을 살리지 못하고 겉도는 모습을 보여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게 함정이었다. 방송 복귀후 주변에서 똑똑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 위기가 찾아온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로 책을 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웃음 지었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면서 결혼 적령기를 맞은 그는 "지금은 에너지가 넘쳐 하고 싶은 게 많아 결혼 생각은 없다"며 "힘 좀 빠지면 결혼을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형에 대해 "가정을 많이 사랑하는 여자를 좋아한다. 내조의 여왕(?)"이라며 "외모는 뭔가 그냥 '필'이 와야 되는 것 같다. 착하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디자인/김아람

YG 새 보이그룹 아이콘 멤버는 누구?

지난달 데뷔한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아이돌 그룹 위너는 독특한 데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엠넷 '후 이즈 넥스트: 윈(WHO IS NEXT: WIN)'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데뷔를 두고 경쟁을 펼쳤다. 당시 승리를 거둔 A팀의 멤버 강승윤·이승훈·송민호·김진우·남태현이 바로 현재의 위너다.

빅뱅에서 시작된 YG 보이그룹 데뷔 서바이벌은 위너를 거쳐 '믹스앤매치'로 이어졌다. 오는 11시 오후 11시 첫 방송을 앞둔 엠넷 '믹스앤매치'에는 '윈'의 B팀 멤버 비아이·바비·송윤형·구준회·김동혁과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새로운 얼굴 정진형·정찬우·양홍석까지 총 9명의 연습생이 출연한다. 이들 중 바비·비아이·김진환은 이미 데뷔가 확정된 상태다. 나머지 6명 중 4명만이 앞선 3명과 함께 YG 엔터테인먼트의 세 번째 보이그룹 아이콘(iKON)으로 데뷔할 수 있다.

특히 바비와 비아이는 엠넷 래퍼 서바이벌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이번이 세 번째 서바이벌에 나선다. 정식 데뷔를 하지 않은 연습생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대해 양현석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믹스앤매치' 제작발표회에서 "세상이 경쟁이고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경쟁"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가운데)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YG엔터테인먼트 신인 보이그룹 선발 프로젝트 '믹스앤매치'(MIX & MATCH) 제작발표회에서 프로젝트 후보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현석 "서바이벌 이유? 세상과 무대 자체가 경쟁"

양 대표는 "아이콘의 이름에 C가 아닌 K를 쓰는 이유는 K-팝의 대표 주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믹스앤매치'를 통해 아이콘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이 마치 음악 시장의 국가 대표를 뽑는 것 같다. 모든 게 경쟁인 사회다. 히딩크 감독도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선발할 때 개인적 감정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그러하다. 지금은 잔인하게 느껴지겠지만 멤버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친 후 더 강해지리라 믿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은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윈'의 경우 탈락한 B팀에게 이번 '믹스앤매치'라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번 서바이벌에서 탈락한 두 멤버는 YG 보이그룹으로 데뷔할 확률이 희박하다. 양 대표는 "빅뱅 서바이벌 때 떨어진 장현승 군이 다른 기획사로 가 비스트로 데뷔했듯 여기서 떨어진 2명이 YG에서 데뷔하긴 어려울 것이다. '믹스앤매치'에서 떨어진 친구들을 데뷔시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신세경 9월 승부수 던진다

'타짜' '아이언맨'…"당찬 에너지 이어갈 것"

배우 신세경(사진)이 9월 드라마와 영화로 승부수를 던진다. 오는 10일 첫 방송되는 KBS2 새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에 출연한다. 3일 개봉되는 영화 '타짜'가 보여준 허미나의 당찬 에너지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신세경은 '아이언맨'에서 손세동 역을 맡았다.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줄 아는 당차고 순수한 인물이다. 신세경이 '타짜'에서 연기한 허미나는 도박판에서 남자들과 승부를 벌인다. 청순함부터 섹시하고 당찬 모습까지 다양한 매력을 지닌 인물이다.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신세경은 "'타짜' 속 이미지와 다른 걸 의도하지 않았다"며 "능동적이고 당차다는 면에서 허미나와 손세동은 비슷하다. 전작의 에너지가 옮겨져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언맨'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며 "촬영하면서 스스로도 아기였을 때의 순수했던 시절을 되새기고 있다. 정화되는 걸 많이 느낀다"고 출연 계기를 설명했다.

'아이언맨'은 판타지 멜로 드라마다. 남자 주인공 주홍빈(이동욱)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를 눈에 보이는 칼로 표출한다. 김용수 감독은 이날 CG작업에 대해 "우려가 크지만 칼이 돋아나는 건 '아이언맨'의 정체성이다"며 "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방송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효진기자

'보면서 힐링한다' 먹방의 진화

정보 제공 '생생정보통'·미간 평가 '테이스티로드'·힐링 밥상 '식사하셨어요'

먹는 방송(이하 먹방)이 진화하고 있다.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한 형식, 연예인들의 생생한 후기를 듣거나 식객이 즉석에서 요리하며 구미를 당기는 방식으로 변화 중이다. KBS2 '생생정보통'과 올리브채널 '테이스티로드'는 보는 먹방,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식사하셨어요'는 힐링 먹방을 추구한다.

'생생정보통'은 저녁 식사 시간 시청자에게 맛집 정보를 제공한다. 반응은 뜨겁다. '생생정보통'에서 소개된 음식은 포털 사이트 인기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음식점 정보를 게시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테이스티로드'는 정보를 제공하는 '생생정보통'과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형태를 합친 먹방프로그램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간접 광고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음식을 체험하는 박수진·김성은의 진정성이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수진의 미간 주름은 시청자 사이에서 음식 맛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박수진은 음식이 맛있으면 미간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감탄한다. 이 모습은 겉으로만 '맛있다'고 하는 음식 프로그램 출연자의 일반적인 반응과 다르다. 진심을 속일 수 없는 '미간' 평가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먹방이라는 호응을 얻고 있다.

SBS '식사하셨어요' 이영자·임지호. /SBS 제공

SBS '…식사하셨어요'는 요리연구가 임지호와 방송인 이영자가 함께 여행을 떠나 밥상을 차리는 먹방이다. 임지호에게 식재료는 '자연'이다. 산에 가면 먹을 수 있는 풀을 골라내 즉석에서 나물을 만드는 식이다. 맨손으로 양념하는 모습과 식재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보는 이의 구미를 당긴다.

방송의 매력은 밥상을 차려 사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데 있다. 오해로 인해 관계를 끊고 살아 온 사람들이 한 밥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소통하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평가다.

/전효진기자 jeonhj89@

로드토크쇼
고성국의 빨간 의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길을 만든다
매주 |수| 오후 6시 50분 tvN 방송

"다양한 작품 차별화된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개막작 '군중낙원'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2일 오전 부산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상영작과 전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올해 영화제에는 79개국 314편이 초청됐다. 지난해 초청 작품 70개국 301편보다 늘어났다. 월드 프리미어 98편(장편 66편, 단편 32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36편(장편 33편, 단편 3편), 뉴 커런츠 부문 12편, 특별기획 프로그램 20편 등을 선보인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올해 초청 작품이 늘어난 것은 네팔 등 아시아 지역 나라의 작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다양한 나라의 작품을 많이 발굴해 다른 영화제들과 차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막작으로는 대만 도제 니우 감독이 '군중낙원'이 선정됐다. 도제 니우 감독이 1960~1970년대 대만에서 군 생활을 한 아버지 세대에 대한 추억을 반추하며 만든 작품이다. 사랑과 공감이라는 테마와 함께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이산민의 아픔, 여성에 대한 도적적 관념, 억압적 군대문화 등 1960~1970년대 대만 사회의 단면을 담았다.

홍콩 리포청 감독의 '갱스터의 월급날'은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액션영화의 전통적인 비장미를 빼고 코미디와 멜로를 결합한 혼성 장르 작품이다.

특별전 프로그램도 공개됐다. '한국영화회고전'에서는 정진우 감독의 작품들이 상영된다. 터키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터키 독립영화 특별전', 흑해 연안국 조지아의 여성 감독 작품들을 소개하는 '조지아 특별전' 등을 마련했다. 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에는 중국의 해외배급사와 아시아 대표 매니지먼트사들이 신규로 대거 참여한다.

2일 오전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관 집행위원장. /뉴시스

영화제 게스트도 공개됐다. 해외 게스트로는 홍콩 허안화 감독과 진가신 감독, 헝가리의 벨라 타르 감독, 중국의 장이모 감독, 그리고 배우 탕웨이 등이 초청됐다. 봉준호, 임권택 감독, 배우 안성기 등 국내 영화인들도 부산을 찾는다. 개막식 사회는 일본 배우 와타나베 켄과 한국 배우 문소리가 맡았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 동안 부산 영화의전당과 센텀시티,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장병호기자

"도전의식으로 선택한 작품"

정우성 '마담 뺑덕'으로 나쁜 남자 변신

배우 정우성이 나쁜 남자로 변신했다. 정우성은 다음달 개봉 예정인 영화 '마담 뺑덕'(감독 임필성)에서 사랑을 저버린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빠지는 남자 학규를 연기했다.

2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정우성은 "'심청전'을 모티브로 했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받았다. 그런데 효녀 심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목처럼 뺑덕어멈에 대한 이야기였다. '심청전'을 현대적인 이야기로 전환시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룬 것이 흥미로웠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실 학규 역은 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다. 시나리오를 받고서도 한 달 이상 고민했다. 그런데 쓸데없는 도전의식으로 연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담 뺑덕'은 효의 미덕을 다룬 작품으로 잘 알려진 고전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비틀어 욕망에 대한 이야기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한 남자와 그를 사랑한 여자, 그리고 그의 딸 사이를 집요하게 휘감는 사랑과 욕망, 집착을 그렸다.

이번 작품에서 정우성은 모델 출신 여배우 이솜과 호흡을 맞췄다. 이솜은 학규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지만 학규의 배신으로 욕망보다 더 지독한 집착을 품게 되는 덕이를 연기했다.

정우성은 "극중 덕이는 새로운 얼굴이어야 했다. 필연적으로 노출이 필요했고 감정의 스펙트럼도 넓었다. 어떤 여배우가 하게 될지 궁금했다"며 "우연히 감독님과 미팅하는 이솜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개성 강한 얼굴이었다.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고 이솜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2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마담 뺑덕' 제작보고회에 주연 배우 정우성(오른쪽)과 이솜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솜도 "제목이 재밌어서 호기심이 갔다. 순수한 소녀에서 복수하는 악녀로 바뀌는 감정들이 부담도 됐지만 도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정우성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정말 멋있고 조각 같았다"고도 했다.

연출은 '남극일기' '헨젤과 그레텔' 등을 만든 임필성 감독이 맡았다. 임 감독은 "익숙한 고전인 '심청전' 속 심봉사와 뺑덕 어멈의 이야기를 성인 동화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욕망·사랑·집착 같은 인간의 깊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내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설명했다.

도전의식으로 선택한 작품인 만큼 작품에 대한 기대도 컸다. 정우성은 "영화를 선보이기 전에 관객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해줄지 기대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완성된 영화를 빨리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박찬욱 감독 차기작은 '아가씨'

6년 만의 한국영화…여주인공 오디션 실시

박찬욱(사진) 감독이 차기작으로 '아가씨'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들어간다.

'아가씨'는 세라 월터스의 소설 '핑거스미스'를 모티브로 젊은 여인 두 명과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다. 박찬욱 감독의 제작사 모호필름과 '올드보이' 임승용 프로듀서의 제작사 용필름이 공동 제작한다.

이번 작품은 '스토커'로 할리우드에 진출했던 박찬욱 감독이 6년 만에 선보이는 한국영화로 기대가 모아진다. 영화의 두 여자 주인공은 9월 중 오디션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아가씨'는 내년 상반기 촬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이병헌 협박 20대 여성 검거

소속사 "연예인 사생활 악용 악질적 범죄"

배우 이병헌(사진)을 협박한 20대 여성들이 검거됐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김모(21)씨와 이모(25)씨 등 여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병헌 측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신고했고 1일 새벽 이들을 집 주변에서 검거했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연예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바로 소속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아는 동생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 협박 사실도 인정했다. 이들을 압수수색한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특별한 자료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본 건은 상대방이 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대중이 평소의 모습을 궁금해한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본 건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피의자의 범죄에 협조하는 것이므로 확대 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를 정중히 자제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장병호기자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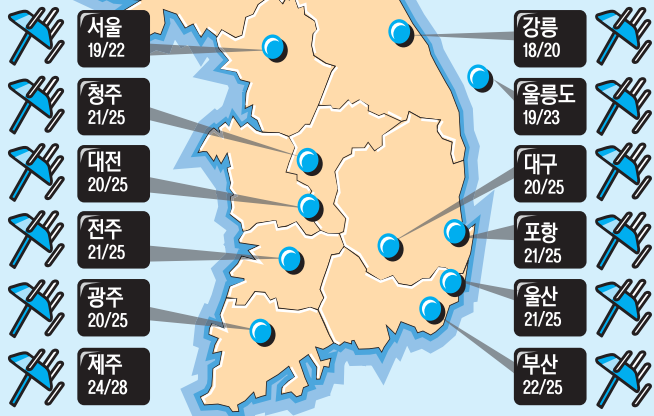
살빼기 운동·식이요법 요령 있나요
방법은 하나…덜 먹고 더 움직이는 것

Q Hey 캣우먼!
예전에는 의욕이 넘쳐서 정말 하루 종일 다이어트 생각으로 운동하고 자기 전까지 신경 쓰면서 살을 뺐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이 찐 뒤로는 '내일부터 하자' '마음 먹으면 하게 되겠지' 하고 자꾸 미루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잡고 식이조절도 잘하게 될까요?
/흑마늘

A Hey 흑마늘!
이것이 '어떻게(how)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이라면 '그냥 하면 된다'라고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방법론 역시도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것, 딱 하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난 정말 살을 빼야만(why) 하는 것일까?'라는 존재론적 질문이라면 다르게 대답해드려야죠.

우선 살이 찐 것을 차별하거나 놀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은 아님에도 살 찐 상태보다는 적정 몸무게나 날씬한 몸무게가 사회적으로 살아가기에 훨씬 낫습니다. 주관적인 만족도도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살아가기'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 예쁜 옷을 사 입기 위해, 남들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등등일 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기쁨보다 먹는 기쁨이 내겐 더 크다고 판단될 때, 혹은 내가 살이 쪘다고 해도 그것을 만회할 만한 다른 매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오히려 살이 찐 것이 사랑스러운 개성이 된다고 하면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야 없겠지요.

살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빼지 않는 한 절대 안 빠집니다. 즉 긴장하고 예민해져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러려면 내 마음이 헐겁고 여유로워선 안 됩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 '모욕 당해서 분하다' 등의 강력한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란 건 습관의 결과물이기에 계속 헐렁한 상태면 나이 들어서도 살 쪘있고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그냥 '퍼진 아줌마'가 돼버려 이젠 더 이상 만회할 힘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캣우먼

가을철에는 열성 질환에 걸릴 수 있으므로 야외 풀밭에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벌레에 물리면 가려움증·화농·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친구가 생수사업 동업을 하자는데…
사업은 안맞아 교육계통 일 찾도록

배두산산 남자 55년 8월 31일 양력 22시경

Q 중소기업에서 총무부 업무를 보면서 사장님의 비서겸 참모 노릇을 해 온 남자입니다. 회사가 외국기업과 병합되는 바람에 어학 실력이 없는 저는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내 앞가림을 했다면 지금쯤 외주 업체 하나 만들어서 납품을 하여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오직 회사 일만 열심히 해온 죄로 장래가 속수무책입니다. 미리 예측 못하고 목표 없이 대책세우지 못하고 지낸 제가 잘못이지요. 이런 가운데 시골에 산 밑에서 생수가 나오는 수원지를 발견한 친구가 동업을 하자고 하는데 가진 돈이라곤 퇴직금 얼마뿐인데 어찌 해야 하나요.

A 현대에 있어 직업의 의미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서 사회에 봉사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함으로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서로 분담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며 직업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꿈과 포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재능이라도 직업으로 살려서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직업으로 발전 시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물에 뜬 나무'와 같아 주거를 자주 옮기며 부부의 인연이 바뀌는 굴곡이 따를 가능성이 높은데 한편으로는 '물위에 돛을 단 배'와 같으므로 활동무대가 넓은 편입니다.

생일지에 자수(子水)는 인수(印綬:나를 생해주는 오행)가 주가 되므로 지적수준이 높은 편으로 보편적인 기준에서 지혜와 총명을 암시하는 길한 성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중년이후라도 학구열을 암시합니다. 사주의 뿌리가 수국(水局:물로 무리를 이룸)으로 이어지고 정인격(正印格: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인성이 바르고 이해타산이 바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사업을 한다면 부평초와 같은 신세로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동안의 경력과 지식을 살려서 교육계통으로 진출을 하세요.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어도 찾으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며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물질적인 것은 부차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마음입니다. 귀하는 태극귀인(太極貴人)의 상으로 시종(始終)을 의미하며 2014년 10월이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 종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3			4	6			
	2							
4		8	2		9	5		
8	5			7				3
		2				9		
3				1			7	2
		5	3		4	1		9
							3	
			6	9			2	5

				1			8	7
7					5	4		2
			4			3	6	
5			1		3			
	8			2			5	
			6		9			8
	9	5			7			
4		3	5					6
8	2			4				

스도쿠 정답

9	3	7	5	4	6	2	1	8
5	2	6	7	8	1	3	9	4
4	1	8	2	3	9	5	6	7
8	5	1	9	7	2	6	4	3
7	4	2	8	6	3	9	5	1
3	6	9	4	1	5	8	7	2
6	7	5	3	2	4	1	8	9
2	9	4	1	5	8	7	3	6
1	8	3	6	9	7	4	2	5

2	3	4	9	1	6	5	8	7
7	6	1	8	3	5	4	9	2
9	5	8	4	7	2	3	6	1
5	4	7	1	8	3	6	2	9
6	8	9	7	2	4	1	5	3
3	1	2	6	5	9	7	4	8
1	9	5	2	6	7	8	3	4
4	7	3	5	9	8	2	1	6
8	2	6	3	4	1	9	7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9월 3일 (음 8월 10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양질의 영양분이 필요하다. **60년생** 문서 일은 당분간 관망할 것. **72년생** 올인한 일은 결과가 풍성해 진다. **84년생**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실감한 하루~.

49년생 기강이 해이한 자손엔 회초리 들어라. **61년생** 움직이면 득보다 실이 많다. **73년생** 직장인은 입장정리를 분명히 할 것. **85년생** 괄시를 받아도 참아야 한다.

50년생 가장의 말에 힘이 실린다. **62년생** 아무 것도 안 하는 자유 누려보라. **74년생** 추진 중인 일은 탈력이 붙는다. **86년생** 익숙한 일이라고 방심하지 말 것.

51년생 한발 물러나 양보하라. **63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즐겁다. **75년생** 실물수가 따르니 조심할 것. **87년생** 진심을 확인한 연인들의 밀어는 더 달콤해진다.

52년생 비상 걸린 일은 돌파구 찾는다. **64년생** 말썽 있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76년생** 운기가 열려서 매사 순조롭다. **88년생** 장점을 살리는데 최선 다하라.

53년생 냉전인 사람과 대화 물꼬 틀 것. **65년생** 변수는 있으나 어려움은 없다. **77년생** 현장 근로자는 안전사고 조심할 것. **89년생** 동쪽서 희소식이 날아든다.

42년생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54년생** 칭찬이 쏟아져 기분 좋은 하루~. **66년생** 원하던 일은 드디어 성취한다. **78년생** 분위기 무르익었으니 배를 띄어라.

43년생 아랫사람 뜻 따르면 편안~. **55년생** 걱정한 일은 순조롭게 넘어간다. **67년생** 변수가 많은 날이니 대비할 것. **79년생** 어려움에 처하나 벗이 나타난다.

44년생 자비는 이익으로 연결된다. **56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니 마음 비워라. **68년생** 안팎에 웃을 일이 잇따른다. **80년생** 시기하는 사람이 많으니 처신 잘 하라.

45년생 눈앞 이익에 부화뇌동 말라. **57년생** 역마가 발동해 움직이면 좋다. **69년생** 사방팔방 막힘이 없어 거침없는 질주~. **81년생** 친구 도와 줄 일이 생긴다.

46년생 외출하면 눈과 입이 즐겁다. **58년생** 주변의 도움 거절하지 말라. **70년생**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82년생** 신중해서 나쁠 것 없으니 매사 조심할 것.

47년생 돈 계산은 분명히 할 것. **5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71년생** 실익이 없는 감투는 사양할 것. **83년생** 지나간 일은 빨리 잊을수록 좋다.

베네수엘라(5일), 우루과이(8일)와의 국가대표 평가전을 앞두고 (왼쪽부터 순서대로) 손흥민·이근호·기성용·신태용 코치·이동국·차두리가 2일 소집 장소인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 킨텍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대표팀 안방서 명예회복 노린다

베네수엘라·우루과이와 평가전…월드컵 주전 대거 출전

월드컵에서 자존심을 구긴 축구 대표팀이 안방에서 남미 강호들을 상대로 명예회복을 벼른다.

두 차례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 대표팀은 2일 경기도 고양시의 엠블호텔에 소집돼 필승을 다짐했다. 한국은 5일 오후 8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베네수엘라, 8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에는 손흥민(레버쿠젠), 기성용(스완지시티), 구자철(마인츠), 이근호(상주 상무), 이청용(볼턴) 등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주전 선수들이 대거 나선다. 홍명보 감독이 사퇴한 후 사령탑이 빈 상황에서 대표팀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 지도 관심을 모은다. 차기 코치로 내정된 신태용, 홍명보호의 코치로 활동한 박건하, 김봉수 골키퍼 코치가 함께 대표팀을 지휘한다.

신태용 코치는 정예요원들을 투입해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드컵 부진으로 나빠진 이미지를 개선하겠다. 한국 축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응원을 받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월드컵에서 뛰었던 박주영은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했고, 김신욱(울산)은 아시안게임 대표로 차출됐다. 베테랑 스트라이커 이동국(전북 현대)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동국은 A매치 99차례 출전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평가전에 나서면 센추리클럽에 가입한다.

병역 미필 선수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이 불발된 손흥민은 "아쉽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이번 평가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아쉽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말을 많이 하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의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다. 친구들이 꼭 좋은 성적을 내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이어 "대표팀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자리"라며 "이번 두 경기는 매우 중요하다. 남미의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쳐 팬들의 마음을 되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는 객관적 전력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까다로운 상대다. 베네수엘라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9위, 남미 랭킹 7위의 까다로운 팀이다. 우루과이는 FIFA 랭킹 6위이자 남미에서 아르헨티나(2위), 콜롬비아(4위) 다음으로 순위가 높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른 간판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가 출전하지 않지만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평가전은 일본과의 비교가 불가피해 대표팀은 더욱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일본은 우루과이와 5일, 베네수엘라와 8일 평가전을 치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박주영 유럽리그 떠난다

이적시장 마감… 새 소속팀 제의 없어

박주영(사진)이 결국 유럽 리그를 떠나게 됐다.

2일 오전 7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등 유럽 주요 이적시장이 일제히 마감된 가운데 박주영(29)은 새로운 팀을 찾지 못했다.

박주영은 지난 6월 아스널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현재 소속팀이 없는 무적 신분 상태다. 7월 터키 부르사스포르 이적설과 잉글랜드 선덜랜드 이적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박주영에게 남은 카드는 9월까지 이적 시장이 열려 있는 '중동 리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대한축구협회는 "박주영이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경남 양산에서 AFC 지도자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았다"고 전하며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돌았다.

한편 지난달 27일 프랑스 스포츠 전문매체인 풋 메르카토는 현재 소속팀이 없는 선수들 중 포지션별로 소개할만한 선수 11명을 선정해 발

표했는데 박주영은 공격수 부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학철기자

프로야구 전적 2일

■문학

팀	1-3	4-6	7-9	계
한화	001	104	1XX	7
SK	200	401	0XX	7

<7회 강우콜드게임 무승부>△ 홈런 = 박정권 21호(1회2점) 한동민 2호(4회4점·이상 SK) 김태균 13호(4회1점) 피에 16호(7회1점·한화)

류현진이 살린 다저스 연승 실패

워싱턴에 4-6 패 최근 4경기서 1승

류현진의 완벽투로 2연패에서 벗어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워싱턴 내셔널스에 홈런 4방을 허용하며 또 다시 패했다.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인 다저스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동부지구 1위 워싱턴과의 대결에서 4-6으로 졌다. 다저스의 선발투수로 나선 로베르토 에르난데스는 4⅓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잡기도 했으나 4개의 홈런을 포함, 5개의 안타를 맞으며 5실점 해 패전투수가 됐다.

에르난데스는 1회초 2사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이슨 워스에게 솔로홈런을 맞으며 선취점을 내줬다. 다저스는 곧바로 따라붙었다. 1회말 애드리안 곤살레스가 볼넷으로 얻은 2사 1루 상황에서 맷 켐프가 홈런을 쏘아 올려 2-1로 경기 초반 분위기를 뒤집었다.

그러나 에르난데스는 3회초만 2개의 홈런을 내줬다. 선두타자 아스드루발 카브레라에게 좌월 솔로홈런을 맞았고 데너드 스판에게도 솔로홈런을 허용해 다저스는 2-3으로 역전당했다. 5회초 1사 1루에서 스판에게 또 홈런을 얻어 맞은 에르난데스는 2점을 빼앗기며 크리스 페레스와 교체됐다.

워싱턴은 7회초 곤살레스와 앤서니 렌든의 2루타로 1점 더 달아났고, 다저스는 7회말 후안 우리베의 1타점 중전 안타로 한점을 따라 붙었다.

다저스는 9회말 2사, 우리베의 1타점 내야 안타로 4-6으로 점수 차를 좁혔으나 이후 추가 득점은 없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2경기 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던 다저스는 이날 워싱턴에 졌지만 같은날 샌프란시스코가 승수를 추가하지 못하면서 2경기 차 1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학철기자 kimc0604@

글로벌 캠퍼스 수료식(캘리포니아주립대)

미군 Camp Humphreys 인턴십 수료식

뉴질랜드 오클랜드공대 복수학위 수여식

글로벌 전공체험(미국 뉴욕, 워싱턴 등)

글로벌 전공체험(캐나다 벤쿠버 UBC)

한-러 국제학술세미나(국립모스크바대)